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劉 娜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 중국어 ‘在’자문의 통사론,
의미론 및 인지화용론적인 연구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遇 美 宏

현대 중국어 ‘在’자문의 통사론,
의미론 및 인지화용론적인 연구

劉 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遇 美 宏

인준서

우미홍의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4年 6月

심사위원장 慎 俊 浩. 

심사위원 金 紅 梅. 

심사위원 刘 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요약

본 논문은 현대 중국어의 ‘在+NP’ 라는 전치사구를 포함하는 ‘在’자문을 통사론, 의미론, 인지화용론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 목적은 전치사 ‘在’의 사용, 특히 ‘在+NP’구조의 통사적 형태를 분류하고, 세 가지 ‘在’자문 패턴 간의 차이, 층차 분석법의 차이, 의미 지향의 다양성 및 문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현대 중국어 ‘在’자문의 사용을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우리는 ‘在+NP’를 포함하는 ‘在’자문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這篇論文在國內發表了。”와 “這篇論文發表在國內了。”이 두 문장에서 ‘在國內’는 각각 문장 속 동사의 앞과 뒤에 나타나고 문장에서 출현하는 위치가 다르지만, 서로 바뀌도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그러나 “我在家吃飯。”을 “?我吃飯在家。”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적합한 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在國內, 這篇論文發表了。”는 문장이 성립하기는 하지만, 위의 두 문장만큼 자연스럽게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울러, 위의 두 문장은 서로 바꿀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 어떤 문형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할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在+NP’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위치를 구분 기준으로 삼고, 통사론, 의미론, 인지화용론의 측면에서 이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在’자문 내의 ‘在+NP’구조를 PP로, 주어 부분을 NP로, 서술어 부분을 VP로 표기한다. 먼저 PP가 문장 내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在’자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PP+NP+VP’식, 즉 PP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고 주어 앞에 있는 문장을 A식으로 분류한다. ‘NP+PP+VP’식, 즉 PP가 문장 중간에 위치하고 주어 뒤, 서술어 앞에 있는 문장을 B식으로 분류한다. ‘NP+VP+PP’식, 즉 PP가 문장 끝에 위치하고 동사 뒤에 있는 문장을 C

식으로 분류한다. 또한, 층차 분석법을 통해 이 세 가지 문장 형식에 대해 ‘나눔’과 ‘관계’분석을 수행한다. A식 ‘PP+NP+VP’에서는 먼저 PP와 뒤따르는 절 사이에서 분할을 하여 수식 관계로 구분하고, 그다음 NP와 VP 사이에서 분할을 하여 주술 관계로 구분한다. B식 ‘NP+PP+VP’에서는 먼저 NP와 뒤따르는 절 사이에서 분할을 하여 주술 관계로 구분하고, 그다음 PP와 VP 사이에서 분할을 하여 수식 관계로 구분한다. C식 ‘NP+PP+VP’에서는 먼저 앞 절과 PP 사이에서 분할을 하여 술보 관계로 구분하고, 그다음 NP와 VP 사이에서 분할을 하여 주술 관계로 구분한다. 또한, 통사론적 영향 요인, 의미론적 영향 요인, 화용론적 영향 요인 및 기타 요인과 문장 내 동사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在’자문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통사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在’자문의 세 가지 문장 형식에 대하여, A식에서 ‘在+NP’구조는 문장의 시작 전에 위치하며, 그 문법적 의미는 뒤이은 전체 사건 혹은 동작이 발생하여 출현하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뒤에 서술 혹은 묘사되는 대상을 지정한 데 사용된다. B식에서 ‘在+NP’구조는 문장 중간에 위치하며, 그 문법적 의미는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나 상태가 출현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C식에서 ‘在+NP’구조는 문장 끝에 위치하며, 그 문법적 의미는 동작이 도달하는 장소나 상태가 출현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의미지향 분석법을 이용하여 세 가지 문장 형식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모든 문장 형식에서 단일 지향, 이중 지향, 삼중 지향의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식에서는 단일 지향일 경우엔 뒤의 주어나 서술어, 목적어를 가리키고, 이중 지향일 경우엔 뒤의 주어와 서술어 혹은 서술어와 목적어를 가리키며, 삼중 지향일 경우 뒤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가리킨다. B식에서는 단일 지향일 경우엔 ‘在’자구 뒤의 서술어를 가리키고, 이중 지향일 경우엔 앞의 주어와 뒤의 서술어 혹은 뒤의 서술어와 목적어를 가리키며, 삼중 지향일 경우엔 앞의 주어와 뒤의 서술어, 목적어를 가리킨다. C식에서는 단일 지향일 경우엔 앞의 서술어

나 목적어를 가리키고, 이중 지향 일 경우엔 앞의 주어와 서술어 혹은 서술어와 목적어를 가리키며, 삼중 지향 일 경우엔 앞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가리킨다.

제4장에서는 주제와 평언의 화용적 측면에서 ‘在’ 자문을 분석한다.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는 것은 주제로, 문장의 주어진 정보이며, 그 뒤의 부분은 평언으로, 앞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이 전개된다. 세 가지 유형의 주제는 각각 A식의 PP, B식의 NP, C식의 NP이며, 평언은 각각 그 뒤에 위치하는 A식의 NP+VP, B식의 PP+VP, C식의 VP+PP이다. 또한, 전경(초점)과 배경의 인지화용론적 분석 측면에서 ‘在’자문을 분석한다. 발화자는 ‘문미 초점 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새 정보를 문장 끝에 위치시킨다. A식 PP+NP+VP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새 정보는 문장 끝의 VP이며, 강조된 초점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다. B식 NP+PP+VP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새 정보는 문장 끝의 VP로, A식과 같지만, 전체 문장의 배열 순서가 다르고 새로운 정보와 주어진 정보가 나타나는 순서가 다르다. 강조된 초점은 누군가가 ‘어디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다. C식 NP+VP+PP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파생형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새 정보는 문장 끝의 PP이며, 강조된 초점은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본 논문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밝히고 향후 연구 방향을 지적한다.

키워드: ‘在’, ‘在+NP’, ‘在’자구, ‘在’자문, 통사론적 분석, 층차 분석법, 의미론적 분석, 의미지향 분석법, 인지 화용론적 분석, 주제, 초점

목 차

논문요약

제1장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동기.....	1
1.2 선행 연구 검토	3
1.3 연구 범위 및 방법.....	6
1.4 논의의 구성.....	7
제2장 ‘在’자문의 통사론적 분석.....	9
2.1 ‘在’자문의 층차 분석.....	12
2.1.1 A식(PP+NP+VP)의 층차 분석.....	13
2.1.2 B식(NP+PP+VP)의 층차 분석.....	14
2.1.3 A식과 B식의 통사적 차이.....	17
2.1.4 C식(NP+VP+PP)의 층차 분석.....	19
2.2 ‘在’자문의 ‘在’자구의 위치 연구.....	22
2.2.1 ‘在’자문의 어순 연구.....	22
2.2.2 ‘在’자문의 동사 연구.....	28
2.3 소결.....	35
제3장 ‘在’자문의 의미론적 분석	38
3.1 ‘在’자문의 의미론적 표현.....	39
3.1.1 A식(PP+NP+VP)의 의미론적 표현.....	39
3.1.2 B식(NP+PP+VP)의 의미론적 표현.....	43
3.1.3 C식(NP+VP+PP)의 의미론적 표현.....	44

3.2 ‘在’자문의 의미지향적 분석.....	4 7
3.2.1 A식(PP+NP+VP)의 의미지향적 분석.....	4 7
3.2.2 B식(NP+PP+VP)의 의미지향적 분석.....	4 9
3.2.3 C식(NP+VP+PP)의 의미지향적 분석.....	5 1
3.3 소결.....	5 3
제4장 ‘在’자문의 인지화용론적 분석.....	5 5
4.1 주제와 평언.....	5 6
4.1.1 주제.....	5 6
4.1.2 평언.....	6 2
4.2 전경(초점)과 배경.....	6 8
4.2.1 초점과 배경.....	6 8
4.2.2 전경과 배경.....	7 0
4.3 소결.....	7 4
제5장 결론.....	7 6

<參考文獻>

<ABSTRACT>

<그림 차례>

[그림 1] A식(PP+NP+VP)의 층차 분석	14
[그림 2] B식(NP+PP+VP)의 층차 분석	15
[그림 3] C식(NP+VP+PP)의 층차 분석	21

<표 차례>

[표 1] 세 권 사전에서 ‘在’의 사용법 정리표	5
[표 2] ‘이분법’의 통사구조표	10
[표 3] ‘삼분법’의 통사구조표	11
[표 4] 초점집중의 비교표	6 9
[표 5] 전경과 배경의 특성 설명표	7 1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연구 동기

본 논문은 현대 중국어에서 ‘在+NP’라는 전치사구조를 포함하는 ‘在’자문에 초점을 맞추어 통사론·의미론·화용론의 세 개 측면의 문법 이론을 활용하여 통사적 형태를 분류하고, 문장 내에서 ‘在+NP’구조의 층차 분석 구분, 문장 성분의 의미 지향적 분석, 다양한 통사적 형태의 차이, 의사소통에 있는 중의 선택 경향 등을 검토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현대 중국어 ‘在+NP’ 전치사구조를 전반적으로 재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연구 및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과정에서, 종종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접하게 된다.

- (1) a. 這篇論文在國內發表了。¹⁾
(이 논문은 국내에서 발표되었다.)
b. 這篇論文發表在國內了。
(이 논문은 국내에 발표되었다.)
- (2) a. 我在家吃飯。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b. ?我吃飯在家。²⁾
(?나는 밥을 먹는다 집에서.)

예(1a)와 (2a)는 구조가 같다. 둘은 다 ‘주어+在+NP+서술어’형태이다. ‘在國

1)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은 ‘在’자문인데, 그 중에 PP, 즉 ‘在+NP(處所)’라는 전치사 구조 강조하기 위해 밑줄을 그어 굵게 표시했다.
2) ‘?’ 표시는 어법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뜻한다.

內’는 동사 ‘發表’앞에, ‘在家’는 동사 ‘吃飯’앞에 위치한다. 즉, ‘在+NP’가 동사 앞에 위치한다. 이를 약간 변환하여 (2a)와 (2b)로 만들 경우, 구조는 ‘주어+서술어+在+NP’가 된다. ‘在國內’는 동사 ‘发表’, ‘在家’는 동사 ‘吃饭’뒤에 위치한다. 즉 ‘在+NP’가 동사 뒤에 위치하게 된다. 그 결과, (1b)처럼 변형된 문장은 여전히 맞는 문장지만, (2b)처럼 변환된 문장은 유효성이 여전히 의문이 된다.

이 네 개의 예문에서 ‘在’는 장소 명사 앞에 사용되며, 문장에는 다른 동사가 평언어로 사용된다. ‘在’는 전치사로, 전체 문장은 전치사와 장소 명사로 구성된 전치사 구조로, 동사의 평언어 앞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1a)와 (2a)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립된다. 하지만, 변환된 후에 왜 같은 구조에서 (1b)는 성립되고 (2b)는 의심의 여지가 남는지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在+NP는 문장에서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하는가? 아니면 동사 뒤에 위치해야 하는가? 그것은 동사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것이 문장에서 사용된 평언어 동사와 관련이 있는지? 심지어 같은 구조로 성립된 (1a)와 (1b)에서도 의미 표현에 있는지 차이가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화자는 (1a)를 사용하기를 택하고, 어떤 변화가 생길 때 화자가 (1b)를 선택하기를 택할까?

또한, 중국 내에서 유명한 『在那遙遠的地方』의 첫 줄 가사는 다음과 같다.

- (3) 在那遙遠的地方, 有位好姑娘。
(그 먼 곳에서 좋은 여자가 있다.)

예(3)에서 ‘在那遙遠的地方’은 ‘在+NP’구조로, 문장의 첫 부분에 위치하여 다른 예시들과 다른 문장 구조를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예(1c) “在國內, 這篇論文發表了”를 추가할 수 있다. 예(1a), (1b)와 여기의 (1c) 예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在+NP’라는 전치사구가 표면 형태상 위치에 따라 ‘在’자문을 분류하고,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을 통사론, 의미론, 인지 화용

론의 세 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다.

1.2 선행 연구 검토

현대 중국어에서 ‘在’에 대한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으며, ‘在’의 품사에 대한 논의, 고대 중국어의 ‘于’와의 용법 차이, ‘在’의 문법화, ‘在’자구의 분류, ‘在’자구조의 의미 표현, ‘在’와 다른 외국어와의 비교 연구, ‘在’의 생략 여부 등 여러 면에서 ‘在’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在’에 대한 수많은 연구 논문들 중 본고의 연구 대상인 ‘在’자문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王還(1957)은 ‘在+NP’를 최초로 연구한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在+NP’는 평언어 앞에서는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나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내고, 서술어 뒤에서는 행동의 주체나 행동의 결과로 인해 도달한 장소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朱德熙([1978]1981)는 변환 분석법을 사용하여 ‘在+NP’가 문장 내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A식 ‘在黑板上寫字’과 B식 ‘字寫在黑板上’으로 나뉘고 주로 검토하였다.

邵洪亮·郭洪國(2001)은 ‘在’자구의 의미 기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고, ‘在’의 의미 지향성에 따라 앞 지향, 뒤 지향, 양쪽 지향 또는 무지향의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在’의 품사(동사 또는 전치사) 및 문장 내에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논문에서는 ‘在’가 다른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내는 의미 특성을 검토하였다. 주어 앞에 위치할

때는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동사 앞에 위치할 때는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 동사 뒤에 위치할 때는 행동의 목적지를 각각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侯懋(1992)은 논문에서, 외국 유학생들이 영어와 인도-유럽어의 영향을 받아 종종 ‘在+NP를 동사 뒤에 두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문장은 동사를 앞에 둘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논문에서는 戴浩一, 王還, 范繼淹 등 학자의 연구를 기반으로 ‘在+NP’문장 내의 동사를 분류하고, ‘在+NP가 동사 선택에 미치는 제한을 논의하였다. 논문은 동사 분류 관점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의 동사 연구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

張宏勝(1997)은 ‘在+NP’구조가 동사 앞에 있느냐 동사 뒤에 있느냐에 따라 ‘在+NP’와 서술어의 관계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즉, a식 ‘在+NP+V’와 b식 ‘V+在+NP’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구조, 의미, 화용 등의 측면에서 b식이 존재하는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齊瀾揚(1998)은 동작 ‘在’자문의 의미적 특성, 동작 ‘在’자문의 문법적 특성, 동작 ‘在’자문의 화용론적 특성, 동작 ‘在’자문에서 해당 객체의 위치와 참조 위치의 관계 등 여러 주요 문제를 논의하였다. 齊瀾揚(1999)은 朱德熙의 논문 위에, 공간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在+NP+VP’ 문형을 논의하였다. 또한 ‘在’가 정적 위치를 반영하는 문형이라는 점, 상태 ‘在’자문의 의미적 특성, 상태 ‘在’자문의 문법적 특성, 상태 ‘在’자문의 화용론적 특성 등 여러 주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俞詠梅(1999)는 의미적 관점에서 ‘在+장소’의 기능을 [-이동]의 행위자[원점], 대상[원점]과 [+이동]의 대상[시작점], 대상[종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王虹(2014)은 통사론·의미론·화용론의 세 개 측면에서 ‘在+NP+V’구조와 ‘V+在+NP’구조의 차이를 비교하고, 두 구조 간의 변환 조건을 분석했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

이운재·송홍령(2014)은 주로 ‘在+장소+VP’와 ‘VP+在+장소’두 가지 구조를 코퍼스 통계를 통해 분석하고, ‘在+장소+VP’와 ‘VP+在+장소’두 구조 내에서의 동사 결합 패턴과 의미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明洋洋(2019)은 ‘V’의 음절 특성, ‘V’의 유형, ‘V’의 의미 특성 측면에서 ‘在’ 문장 내 ‘V’의 제약 요소를 연구했다. 또한, ‘在’의 의미 특성을 연구하고 ‘V+在+NL’의 구조를 분석했다.

본 논문의 전개와 연구를 돕기 위해, 『現代漢語詞典』(제7판), 『現代漢語虛詞詞典』, 『現代漢語八百詞』(증정판) 세 권의 사전에서 설명된 ‘在’의 사용법을 다음 표로 정리했다.

<표 1> 세 권 사전에서 ‘在’의 사용법 정리표

	現代漢語詞典	現代漢語虛詞詞典	現代漢語八百詞		
동사	存在；生存	未提及	存在		
	人或事物的位置		人或者事物存在的處所、位置。一般要帶賓語		
	留在				
	參加(某團體)，屬於(某團體)				
	在於；決定於		在於；決定於。可帶名詞、動詞或小句作賓語		
부사	表示動作、行爲或性質狀態在進行或持續中	表示動作、行爲或性質狀態在進行或持續中	正在		
개사	時間	時間	在+V：表示動作行爲發生的時間	時間	指一般動作發生的時間，‘在……’用在動詞、形容或主語前
			V+在：表示動作進行的時間		指出、消失以及某些不明顯的動作發生的時間，‘在……’用在動詞後。單音節動詞限於‘生、死、定、處、改、放、排，等
					雙音節動詞限於‘出生、誕生、發生、出現、發現、布置、安排、確定、固定，等
	處所	處所	在+及物V：表示動作行爲發生的處所	處所	指動作發生或事物存在的處所，‘在……’用在動詞、形容詞、或主語前
			及物V+在：表示動作行爲達到的處所		指出生、發生、產生、拘留的處所，‘在……’可在動詞後或前
			在+不及物V/不及物		指動作達到的處所，

		V+在：表動作狀態 存現的處所		‘在……’用在動詞後
範圍	條件 範圍	‘在……下’表條件	範圍	用在動詞、形容詞或主語前
條件		‘在……上/中/方面/ 以內/之外’等表示 範圍		用在動詞後
			行爲的主體	

1.3 연구 범위 및 방법

위 <표 1>에서 세 권의 사전인 『現代漢語虛詞詞典』, 『現代漢語詞典』을 통해 정리한 ‘在’의 용법을 통해 볼 때, ‘在’는 주로 동사, 부사, 전치사 세 가지로 나뉜다. ‘在’의 세 가지 품사에 대한 견해는 일치하지만, 전치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我在明天動身。”와 “我在家裏動身。”에 대하여, 『現代漢語虛詞詞典』의 설명에 따르면, “我在明天動身。에서의 ‘在’는 전치사이며, 목적어 구를 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즉 “*我在明天”은 비문이다. 반면, “我在家裏動身。”에서의 ‘在’는 동사로, 전체 문장이 연동식에 속하며 ‘動身’를 빼도 문장이 여전히 성립한다. 3) 또한, 세 가지 품사의 용법은 표로 정리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在’의 전치사 용법이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시간과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본 논문은 ‘在’의 전치사 용법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연구자들은 ‘在’자문의 의미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이미 진행해왔으며,

3)본 논문은 “我在家裏動身。”에서 ‘在’의 품사가 여전히 전치사로 보아야 하며, ‘在+NP’는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구문에서 ‘在’를 연동문(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문장) 내의 동사로 간주하지만, 이 문장은 일반적인 연동식(예: “去學校上課。”)과는 다르며, 구체적인 동사의 의미 요소를 나타내지 않고 여기서 ‘在’은 이동이 없고, 정지된 위치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했다.

주로 전치사 ‘在’로 구성된 ‘在’자구가 표현하는 의미, 즉 ‘在’뒤에 이어지는 의미 구성 요소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일부 논문에서 ‘在+장소’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며, 일부 논문에서는 시간, 범위, 조건, 주체 등의 의미를 논의했다. 각자의 의미 정의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차이가 크지 않는다. 학자들은 대부분 ‘在’자구가 주로 장소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연구는 주로 장소 의미에 집중되어 왔으며, 시간, 범위, 조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은 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삼개평면’이론에 따르면 문장의 분석은 통사, 의미, 화용론의 세 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삼개평면’의 의미 측면에서 ‘在’자문을 분석할 때, ‘在’자문의 심층 의미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없는 실정이다. 요컨대 ‘在’뒤의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문장 내 ‘在’자문의 의미 지향, ‘在’자문내 동사의 의미 특성, ‘在’자문의 의미 유형-문형 등을 분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在+시간’, ‘在+범위’, ‘在+조건’, ‘在+주체’ 등의 구조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在+NP’, 즉 ‘在+장소’라는 전치사 구조에 대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在’는 동사, 전치사, 부사의 세 가지 품사가 있으며, 본 논문은 ‘在’의 전치사, 특히 전치사 용법 중 ‘在+NP’라는 전치사 구를 통사, 의미, 화용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1.4 논의의 구성

구체적인 연구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在’자문이 문장 내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위치에 따라 ‘在’자문을 하위 분류하고, 이어서 ‘在’자문의 통사적 형태와 통사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在’자문 내 동사 ‘VP’의 제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在’자문을 분석하며, 특히 상태 ‘在’자문과 동작 在 문에 중점을 두고, ‘在’자문의 하위 분류의 문법적 의미를 검토한다. 또한, 의미 지향성 분석법을 사용하여 ‘在’자문 중 ‘在+NP’에 대한 앞/뒤 지향 등의 방향성에 따른 단일/이중/삼중 지향 등의 수량에 따른 의미 지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인지화용론적 측면에서 ‘在’자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주로 주제, 평언과 초점, 배경이라는 두 가지 큰 측면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평언 통해 ‘在’자문의 인지화용론적 표현의 차이를 탐구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도출된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예문들은 주로 王朔의 소설 『浮出水面』과 『空中小姐』에서 발췌하여, 일부는 연구 논문과 인터넷에서 인용하였고, 극소수는 필요에 따라 저자가 직접 만들었음을 미리 밝힌다.

제2장 ‘在’자문의 통사 분석

‘在+NP’구조가 문장에서의 위치는 ‘在’자문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에서 ‘在+NP’구조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이분법’과 ‘삼분법’으로 분류했다. 일부 논문에서는 ‘사분법’과 ‘육분법’도 언급되었지만, 저자는 일반적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구에서 ‘사분법’과 ‘육분법’이 너무 광범위하며, 핵심적인 부분은 ‘이분법’과 ‘삼분법’을 기반으로 한 확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분법’과 ‘육분법’을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분법’과 ‘삼분법’에 대한 학자들의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

朱德熙([1978]1981)는 ‘在+NP’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구성되는 문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在+N_p+V+N’처럼 ‘在+NP’구가 문장의 시작 전에 위치하며, 주된 동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또는 ‘N+V+在+N_p’처럼 ‘在+NP’가 동사 뒤에 나타나 문장의 끝을 차지할 수 있다, 혹은 ‘N_p+V+着+N’처럼 NP를 문장의 시작 전에 두고, 동사 뒤에 ‘着’와 수반된다. 朱德熙는 위의 세 가지 문형을 언급했지만, 마지막 문형은 ‘在+NP’구가 아니며, 심지어 ‘在’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써 볼 때, 朱德熙는 사실상 ‘在+N_p’구조를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누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분법’에 해당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갑류(A식)문형 : 在+NP+V+N (朱德熙의 예)

A1 : 在黑板上寫字。

(칠판에 글을 쓴다.)

A2 : 在汽車上看書。

(자동차에서 책 읽는다.)

(2) 을류(B식)문형 : N+V+在+NP (朱德熙의 예)

B1 : 字寫在黑板上。

(글은 칠판에 쓰여 있다.)

B2: 箭射在靶子上。

(화살이 과녁에 맞다.)

朱德熙는 논문에서 A1과 A2를 합쳐 A식 문장이라 하고, B1과 B2를 합쳐 B식 문장이라고 제시했다. A1과 A2, B1과 B2는 표면적으로는 구조가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유형의 문형이다. A1과 B1은 표면적으로 구조가 다르지만 서로 변환이 가능하며 공통의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밀접하게 관련된 문형이다. 朱德熙는 이를 A와 B로 표시했지만, 이후에 ‘삼분법’에서의 A, B와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는 연구의 필요에 따라 gap류와 을류로 변경하여 표기한다.⁴⁾

또한, 王還(1980)은 朱德熙가 제안한 ‘在’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이분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이분법’의 통사구조표

	통사구조	예문	위치
gap류	在+N _P +V+N	在黑板上寫字。	‘在+장소’ 앞 위치
을류	N+V+在+N _P	字寫在黑板上。	‘在+장소’ 뒤 위치

또한, 范繼淹(1982)은 논문에서 ‘在+장소’에 관한 글은 대부분 B식과 C식만을 다루며 A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戴浩一(1975)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이를 아직 연구가 필요한 특별한 유형으로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 A식은 대량으로 존재하며, 많은 문법 현상이 중요하게 여겨질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세 가지 문형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만 보다 전체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지적했다. 이후, 王一平, 胡秀梅 등의 학자들도 范繼淹의 견해와 동일하게, 즉 이

4)朱德熙의 논문에서는 해당 구문을 A와 B로 표기했으나, 후속에 나온 ‘삼분법’의 A, B와 구별하기 위해 연구의 필요에 따라 여기서는 ‘gap식’과 ‘을식’으로 변경하였다.

분법의 기반 위에 문장의 주어 부분을 생각하고, 주어 앞과 뒤에 PP를 두는 두 가지 경우를 세분화하여 ‘在’자문을 세 가지 큰 범주로 세분화했다. 이는 통사적으로 말하는 ‘삼분법’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A식 : PP+NP+VP. 5)

在院子裏我種了幾棵菊花兒。

(마당에서 저는 국화 몇 그루를 심었다.)

B식 : NP+PP+VP.

我在院子裏種了幾棵菊花兒。

(저는 마당에서 국화 몇 그루를 심었다.)

C식 : NP+VP+PP.

我種了幾棵菊花兒在院子裏。

(저는 국화 몇 그루를 심었다, 마당에서.)

‘삼분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삼분법’의 통사구조표

	통사구조	예문	위치
A식	PP+NP+VP	<u>在院子裏</u> 我種了幾棵菊花兒。	‘在+장소’ 앞 위치
B식	NP+PP+VP	我 <u>在院子裏</u> 種了幾棵菊花兒。	‘在+장소’ 중간 위치
C식	NP+VP+PP	我種了幾棵菊花兒 <u>在院子裏</u> 。	‘在+장소’ 뒤 위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분법’은 동사만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방식이며, ‘삼분법’은 동사와 주어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한다. ‘삼분법’에서 A식과 B식은 ‘在’자구 (즉, PP)가 주어 앞이나 주어 뒤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형태적으로 보면, 이 A식과 B식은 ‘이분법’의 ‘갑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하지만, 范繼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가 王朔의 소설

5) 학자들마다 다른 표기법을 사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를 위해 范繼淹의 논문에서 사용된 표기법을 참고하여 채택했다. ‘在+NP’라는 在 구를 나타내는 PP, 주어를 나타내는 NP, 서술어를 나타내는 VP를 사용한다.

『浮出水面』와 『空中小姐』에서 ‘在’자문을 대해 검색해 본 결과, ‘在’자문의 A식, B식, C식 예문이 나타나는 비율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체할 수 없다. A,B,C 명칭이 시사하듯이, 다른 문형은 각각 고유의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의 층차 관계도 층차 다르다. 또한, ‘在+NP’구조만 연구하는 경우 ‘이분법’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在’자구가 나타나는 ‘在’자문, 필요한 경우 일정한 문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분화된 ‘삼분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하의 연구에서는 ‘삼분법’을 기준으로 ‘在’자문을 A식, B식, C식으로 구분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삼분법’에서, A식은 ‘PP+NP+VP’로 간단히 표현된다. PP, 즉 ‘在+NP’구조가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며, 주어 앞에 나타난다. B식은 ‘NP+PP+VP’로 간단히 표현되며, 여기서 PP, 즉 ‘在+NP’구조가 문장 중간에 위치하고 주어 뒤, 동사 앞에 있다. C식은 ‘NP+VP+PP’로 간단히 표현되며, PP, 즉 ‘在+NP’구조가 문장 끝에 위치하고 동사 뒤에 나타난다.

2.1 ‘在’자문의 층차 분석

‘통사적 분석’이란 통사적 관점에서 다양한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표면 현상을 통해 어떤 문형 또는 문법 구조의 특징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 연구 방향과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해당 문형 또는 문법 구조 내부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문형이나 문법 구조가 다른 문형이나 문법 구조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층차 분석법, 의미 특징 분석법 등은 전자의 접근 방식에 속하며, 변환 분석법 같은 것은 후자의 접근 방식에 속한다. 층차 분석은 실제로 두 부분의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나눔’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이다. ‘나눔’은 구조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해결하

는 것이며, 다시 말해 문장이나 문법 구조를 어디에서 분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관계’은 분할로 얻은 직접적인 구성 요소들 사이에 문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해결하는 것이다. 6)

문법 연구에서의 통사적 측면은 문장을 통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 내에서 단어와 단어(즉, 기호와 기호)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는 통사적(syntactic)이다. 단어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일정한 통사 구조를 형성하며, 이러한 통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통사 분석이다. 문장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유형의 판별과 관련이 있다. 구조 유형은 구조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즉 구조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7)

본 절은 ‘삼분법’의 기반 위에서 ‘在’자문의 A식, B식, C식을 통사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1.1 A식(PP+NP+VP)의 층차 분석

A식에 대해, 范繼淹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在’자구가 통사적으로 가장 바깥쪽 구조에 속하며, 문장의 시작전에 위치하여 상태 부사어나 수식어로 작용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3) 在我們碼頭, 常有一些趕海的女孩找當兵的說笑。

(우리 부두에서는 종종 바다를 찾아오는 여자들이 군인들을 찾아 이야기하며 웃곤 한다.)

(4) 在藍色的海洋上, 一對對艦艇從天邊排到天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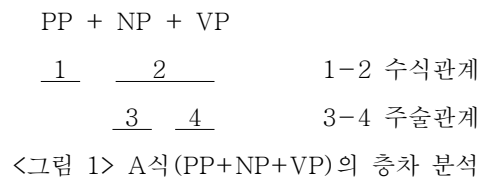
(푸른 바다 위로, 한 쌍 한 쌍의 함선들이 하늘 끝에서 하늘 끝으로 늘어서 있다.)

6) 陸儉明([2005] 2009:56-57, 62) 참조.

7) 胡裕樹, 范曉(1985:2) 참조.

예(3)의 ‘一些趕海的女孩’과 예(4)의 ‘一對對艦艇’은 NP로서 주어이며, 예(3)의 ‘说笑’와 예(4)의 ‘排’는 VP로서 서술어이다. 이 서술어들은 앞서 언급된 주어NP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서술한다. 예(3)의 ‘我們碼頭’와 예(4)의 ‘在藍色的海洋上’는 PP로, ‘在+NP’로 구성된 ‘在’자구이다. 이 구조는 통사적으로 뒤따르는 ‘NP+VP’를 수식하거나 제한하며, 문장의 시작 전에서 상태 부사어로 작용하여 그 뒤에 따르는 전체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적으로 나타낸다.

통사적 층차 분석에서 볼 때, PP+NP+VP 구조는 동일한 수준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 구조는 PP+(NP+VP)로 분석되어야 한다. 즉, PP+(NP+VP) 구조는 실제로 NP+VP가 확장된 형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예(4)를 예로 들면, 첫 번째 층차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在藍色的海洋上’와 뒤따르는 절으로, 이들 사이는 수식관계이다. 두 번째 층차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一對對艦艇’과 ‘從天邊排到天邊’로, 이들 사이는 주술 관계이다. 즉, ‘在藍色的海洋上’는 뒤따르는 주술 구조 전체와 수식관계가 발생하며, PP는 뒤따르는 전체 주술 구조 ‘NP+VP’와 관계를 맺으며, ‘NP+VP’앞에 상태 부사어로 추가되는 확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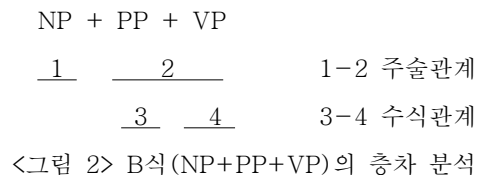
2.1.2 B식(NP+PP+VP)의 층차 분석

아래는 B식 관련 예이다.

- (5) 我們在船上遠遠看到她孤孤單單，戰兢兢的身影。
 (우리는 배 위에서 그녀의 외롭고 떨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 (6) 我們在水勢洶湧的公路上興高采烈地奔跑著。
 (우리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도로에서 기쁘게 달렸다.)

예(5)와 예(6)에서 ‘我們’은 NP로서 주어이다. 예(5)의 ‘看到’와 예(6)의 ‘奔跑’는 문장의 주된 VP(동사 구조) 부분을 형성한다. 예(5)의 ‘在船上’과 예(6)의 ‘在水勢洶湧的公路上’는 PP로, ‘在+NP’로 구성된 ‘在’자구이다. 이 구조는 VP와 함께 앞의 NP 주어에 대한 서술을 진행한다. 예(5)의 ‘在船上’와 예(6)의 ‘在水勢洶湧的公路上’는 문장 뒤의 VP 부분을 수식하고 제한하며, PP는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VP의 상태 부사구로 분석된다.

통사적 층사 분석에서 볼 때, ‘NP+PP+VP’구조에서 NP와 PP+VP 부분은 동일한 수준에 있지 않다. 이 구조는 NP+(PP+VP)로 분석되어야 한다. PP와 VP의 관계는 NP+PP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다.



위에서 언급한 예(5)를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층사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我們’과 뒤따르는 절로, 이들 사이에는 주술 관계다. 두 번째 층사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在船上’와 ‘遠遠看到她孤孤單單，戰兢兢的身影’로, 이들 사이에는 수식관계다. ‘在船上’는 뒤따르는 VP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

위에서 제시된 예(5)와 예(6)을 살펴보면, NP(주어) 부분을 제거하고 PP+VP 구조만 남겨도 문장이 여전히 성립한다. 이는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 가능함을 보여준다.

예(5)와 (6)의 변형은 다음과 같다.

- (5) a. 我們在船上遠遠看到她孤孤單單，戰兢兢的身影。
 (우리는 배 위에서 그녀의 외롭고 떨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b. 在船上遠遠看到她孤孤單單，戰兢兢的身影。
 (배 위에서 그녀의 외롭고 떨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 (6) a. 我們在水勢洶湧的公路上興高采烈地奔跑著。
 (우리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도로에서 기쁘게 달렸다.)
 b. 在水勢洶湧的公路上興高采烈地奔跑著。
 (거센 물살이 흐르는 도로에서 기쁘게 달렸다.)

예(5a)와 예(6a)에서 주어 ‘我們’을 제거하여 예(5b)와 예(6b)로 변환했을 때, 문장은 구체적인 주체의 서술이 빠지긴 했지만, 문법적으로는 여전히 올바른 문장이다. 같은 방식으로, 두 문장에서 PP 부분을 제거하고 NP+VP 부분만 유지하면 문법적 구조는 성립하지만 의미가 변화한다.

- (5) a. 我們在船上遠遠看到她孤孤單單，戰兢兢的身影。
 (우리는 배 위에서 그녀의 외롭고 떨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c. 我們遠遠看到她孤孤單單，戰兢兢的身影。
 (우리는 그녀의 외롭고 떨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 (6) a. 我們在水勢洶湧的公路上興高采烈地奔跑著。
 (우리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도로에서 기쁘게 달렸다.)
 c. 我們興高采烈地奔跑著。
 (우리는 기쁘게 달렸다.)

예(5c)와 (6c)에서 PP를 제거하면, 문장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가 빠져

버려, 문장은 구성상으로는 성립하지만 원래 예(5a)와 (6a)에 비해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她的身影’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또 우리가 ‘奔跑’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로써 B식에서 PP와 VP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며, 구조적으로 PP를 VP의 확장으로 볼 수 있고, 문법적으로는 내부 구조에 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1.3 A식과 B식의 통사적 차이

A식 ‘PP+NP+VP’와 B식 ‘NP+PP+VP’는 많은 상황에서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같은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교환될 수 있으며,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은 제시된 예문들의 변형을 살펴보는 것이다.

- (7) a. 這在海港是常見的。
 (이것은 항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b. 在海港, 這是常見的。
 (항구에서,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다.)
- (8) a. 在她眼裏, 我一定像個全靠祖上隱庇的員外。
 (그녀의 눈에는 나는 분명 조상의 은혜를 입은 부호처럼 보일 것이다.)
 b. 我在她眼裏一定像個全靠祖上隱庇的員外。
 (나는 그녀의 눈에 분명 조상의 은혜를 입은 부호처럼 보일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예(7a)와 예(8a)는 원래 예로 각각 B식과 A식에 속한다. PP의 위치를 변경하여 예(7b)와 예(8b)로 변환하면, 예(7)은 B식에서 A식으로, 예(8)은 A식에서 B식으로 변경된다. 예(7)의 ‘在海港’와 예(8)의 ‘在她眼裏’는 모두 동사를 수식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통사적으로는 상태 부사구로 분석할 수 있다. A식과 B식에서 PP의 위치, 즉 상태 부사어의 위치가 다르지만, 문장의 의미 표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A식과 B식은 항상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沈星怡 (1984)는 일부 ‘在’자문에서 PP가 동사구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 앞에 있어야 하며 동사 앞에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일부 ‘在’자문은 A식이어야 하며 B식과 교환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A식 ‘PP+NP+VP’의 PP는 층차 구조상 외부 구조로, PP는 이 구조에서 전체 주술구조 NP+VP를 수식하며, B식 ‘NP+PP+VP’의 PP는 내부 구조로, NP+VP의 후행 VP를 수식한다.

- (9) a. 在我的書架上, 新書都包了封皮。(沈星怡의 예)
 (내 책장 위에는, 새 책이 모두 책 표지를 씌웠다.)
 b. *新書在我的書架上都包了封皮。
 (*새 책이 내 책장 위에서 모두 책 표지를 씌웠다.)
- (10) a. 在熔岩的邊緣, 東方又出現了一些紫霧。(沈星怡의 예)
 (용암 가장자리에서, 동쪽에 다시 자줏빛 안개가 나타났다.)
 b. *東方在熔岩的邊緣又出現了一些紫霧。
 (*동쪽이 용암 가장자리에서 다시 자줏빛 안개가 나타났다.)

예(9)와 예(10)에서, a조과 b조를 교체하면, 즉 문장의 PP 부분이 주어 NP의 뒤로 옮겨지면 b 그룹의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9)의 PP ‘在我的書架上’와 예(10)의 PP ‘在熔岩的邊緣’는 각각 예(9)의 VP ‘包了封皮’와 예(10)의 VP ‘出現了一些紫霧’의 동작의 장소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PP는 VP 앞으로 옮겨질 수 없다. 또한, PP를 NP 뒤로, VP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지만,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

- (11) a. 在網紅咖啡廳, 大家在拍照。
 (인기 있는 카페에서 모두 사진을 찍고 있다.)
 b. 大家在網紅咖啡廳拍照。
 (모두가 인기 있는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12) a. 在院子裏, 爺爺在乘涼, 媽媽在洗菜。(范繼淹의 예0)

(마당에서 할아버지는 시원한 곳에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채소를 씻고 있다.)

b. 爺爺在院子裏乘涼, 媽媽在洗菜。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시원한 곳에 앉으시고, 어머니는 채소를 씻고 있다.)

예(11a)에서 ‘大家’는 ‘網紅咖啡店’의 손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11b)에서의 ‘大家’는 반드시 ‘網紅咖啡店的顧客’일 필요는 없다. 상호 변환된 b 문장은 올바르지만, a 문장과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는다. 예(12a)는 A식인 ‘PP+NP+VP’이며, 여기서 PP는 이후의 전체 주어-서술어 구조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수식한다. 주어와 동사의 수에 상관없이, 范繼淹(1982)은 A식의 PP는 문법적으로 이후 두 개 이상의 동등한 주어-서술어 구조를 수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의미상으로 PP는 뒤의 두 사건의 공통된 장소이다. B식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예(12a)의 ‘爺爺在乘涼’, ‘媽媽在洗菜’에서 두 사건의 장소는 ‘在院子裏’이다. 그러나 예(12b)에서는 B식 ‘NP+PP+VP’이므로 PP는 뒤의 동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수식한다. 그래서 예(12b)에서 ‘爺爺在乘涼’, ‘媽媽在洗菜’에서는 ‘爺爺在乘涼’가 일어나는 장소를 설명할 수 있지만, ‘媽媽在洗菜’가 일어나는 장소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12a)와 예(12b)는 서로 변환할 수 없다.

2.1.4 C식(NP+VP+PP)의 층차 분석

C식은 종종 C1식과 C2식으로 더 세분화된다. 여기서 C1식은 NP+VP+PP로 단순화되며, C2식은 NP1+VP+NP2+PP로 단순화된다. 본 논문에서는 ‘在’자구의 PP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C1식과 C2식은 통사적 표현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VP 뒤에 PP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분화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구한다.

C식 구조의 층차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范繼淹(1982)의 주장으로, ‘在’자 구인 PP가 전치사 구조이며, VP의 보어이다. C식 구조의 PP는 VP의 내부 구조로 취급되며, VP와 함께 ‘동사 보어 구조’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3) 我帶了一封介紹信在身上。(范繼淹의 예)

(나는 소개서를 몸에 가지고 왔다.)

(14) 蘋果落在地上。(申敬善의 예)

(사과가 땅에 떨어졌다.)

(15) 他說的對, 我不能總長在別人身上。

(그가 말한 것이 맞아,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들 수 없다.)

예(13)의 ‘我’, 예(14)의 ‘蘋果’, 그리고 예(15)의 ‘我’는 NP로, 문장에서 각각 주어를 담당한다. NP 뒤의 VP+PP 부분은 앞의 NP를 설명한다. 예의 PP는 앞의 VP를 보충 설명한다. 예(13)의 PP ‘在身上’은 ‘介紹信’이라는 대상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예(14)의 PP ‘在地上’은 ‘落’라는 동작이 발생한 후에 동작이 이루어진 장소를 가리킨다. 예(15)의 PP ‘在他身上’은 ‘長’라는 동작의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세 예의 PP는 문장의 VP를 보충 설명하며, 앞 VP의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를 설명하므로 보어로 분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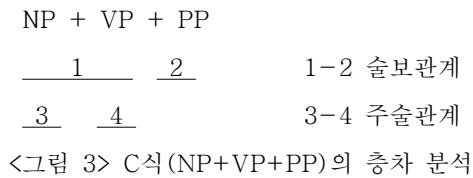
다른 하나는 胡裕樹([1962]2011)가 『現代漢語』에서 언급한 분류 방법이다. 이 방법은 VP와 PP(在+NP)의 ‘在’를 함께 동사로 간주한다. 즉, VP+在로, PP의 NP를 목적어로 간주하여 전체 구조를 술賓구조로 분석한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朱德熙([1982]2008)는 ‘坐在椅子上’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坐在椅子上’를 ‘坐/在椅子上’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坐在/椅子上’로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坐在椅子上’는 구어에서 ‘坐.de椅子上’

로 발음되기 때문에 ‘坐.de椅子上’로 분석할 수 없으며, ‘坐.de椅子上’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朱德熙는 첫 번째 분류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저자는 范繼淹의 주장에 동의한다 “我帶了一封介紹信在身上。”의 예에서, 서술동사는 ‘帶’이고 목적어는 ‘一封介紹信’이다. 여기서 ‘在身上’는 ‘一封介紹信’의 위치이므로, 이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분석되어야 하며, ‘帶’의 목적어로 ‘身上’를 분석하는 두 번째 분석 방법과 같이 ‘在身上’를 ‘帶’의 목적어로 보는 것은 아니다. 또한, “我帶了一封介紹信在身上。”를 목적어 전치 ‘把’ 자문으로 변환하면 “我把一封介紹信帶在身上了。”이 된다. ‘把’ 자문에서 ‘把’ 뒤의 ‘一封介紹信’는 처리나 처분되는 목적어이고, ‘在身上’는 처리나 처분 후 목적어 ‘一封介紹信’의 위치를 보충 설명한다. 종합적으로, 저자는 C식의 구조 뒤의 PP 부분, 즉, ‘在+NP’부분을 술보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C식의 층차 분석은 다음과 같다.



위의 예(13)을 예로 들면, 첫 번째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구성된 부분은 앞 문장과 ‘在身上’이며, 이들 간에는 술보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구성된 부분은 ‘我’와 ‘帶了一封介紹信’이며, 이들 간에는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 PP는 앞 부분의 전체 주술 구조 NP+VP와 관련이 있으며, NP+VP 뒤에 보충 설명으로 쓰인다.

2.2 ‘在’자문의 ‘在’자구의 위치 연구

이 절에서는 ‘在’자구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2.2.1 ‘在’자문의 어순 연구

2.2.1.1 ‘在’자구의 통사론적 영향 요인

첫째, 통사 요소의 영향을 받아 ‘在+ NP (장소)’라는 이 ‘在’자문의 위치는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6) 紅旗被我插在山上。

(홍기는 나에게 의해 산 위에 꽂혔다.)

예(16)은 ‘被’자 문으로, 예의 주어 ‘紅旗’는 피동의 대상이다. 이 문장에서 ‘在山上’는 문장의 시작으로 “*在山上紅旗被我插。”가 되거나 문장 중간으로 “*紅旗在山上被我插。”가 되는 것은 모두 틀린다. ‘被’자문의 통사적 제약으로 인해, ‘在’자구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는 문장의 끝밖에 없다.

둘째, 문장의 동사가 중복형인 경우, ‘在+NP’동사 앞에 사용되며 즉 ‘삼분법’의 B식에 해당한다.

(17) 我便在那些無人的住宅內遊蕩，在主人的床上躺躺。

(저는 그 무인 주택 안에서 배회하고, 주인의 침대에서 누워 본다.)

예(17)에서, 문장의 서술어는 ‘游蕩’와 ‘躺躺’이며, 두 번째 동사 ‘躺躺’

는 중복 형식이다. 이러한 제약에 따라, 문장의 ‘在’자구, 즉 ‘在主人的床上’는 ‘躺
躺’의 앞에만 나타날 수 있으며 *躺躺在主人的床上’은 올바르지 않다.

셋째, 문장의 동사가 보어를 포함할 때, ‘在+NP’는 동사 앞에
사용되며, 이는 ‘삼분법’의 B식에 해당한다.

(18) 我在中國留學了三年。

(저는 중국에서 삼 년 동안 유학했다.)

예(18)에서, ‘三年’은 시간 보어로, 이러한 제약에 따라, 문장의 ‘在’자구, 즉
‘在中國’는 ‘留學’의 앞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문장의 동사가 목적어를 포함할 때, 목적어 앞에는 수량사가 필
요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把’자문을 사용하거나 목적어를 문장 앞
으로 옮겨야 한다.⁸⁾ 이 경우, ‘在+NP’는 문장의 끝에서 나타날 수 있으
며, 이는 ‘삼분법’의 C식에 해당한다.

(19) a. 寫一些名字在上頭。(呂叔湘의 예)

(위에 몇 개의 이름을 쓴다.)

b. 把名字寫在上頭。

(이름을 위에 쓰도록 한다.)

c. 名字寫在上頭。

(이름을 위에 쓴다.)

d.*寫名字在上頭。

(* 위에 이름 쓴다.)

(20) 把我的骨灰撒在祖國的江河湖海。(王一平的 예)

(내 유골을 조국의 강과 호수, 바다에 뿌리다.)

8) 呂叔湘(2004:646) 참조.

예(19c)처럼 목적어 ‘名字’을 문장의 시작으로 옮긴다. 그렇지 않으면 예(19d)처럼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20)에서 ‘我的骨灰’은 피동적 목적어이며, ‘把’자문을 사용하여 ‘我的骨灰’을 문장 앞으로 배치함으로써 문장이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2.2.1.2 ‘在’ 자구 의미적 영향 요소

통사적 요소 외에도 의미적 요소가 ‘在+NP인 ‘在’자구의 문장 내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작이 발생하거나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在+NP’는 동사 앞에 사용된다. 즉, ‘삼분법’의 A식 또는 B식에 해당한다.

- (21) 在草地的中央有一個噴水池, 在噴水池的兩邊是兩個精緻,美麗的花壇。(呂叔湘의 예)
 (잔디밭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으며, 분수대 양쪽에는 두 개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꽃밭이 있다.)

예(21)에서, ‘在草地的中央’은 ‘一個噴水池’를 나타내는 위치이며, ‘在噴水池的兩邊’은 ‘兩個精緻,美麗的花壇’을 나타내는 위치이다. 따라서, 이 두 ‘在’자구는 각각 해당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

둘째, 문장이 출생, 발생, 생성 또는 머무르는 장소를 나타낼 때, ‘在+NP’를 동사 앞이나 뒤에 사용할 수 있다. 동사 앞에 사용되면 ‘삼분법’의 A식 또는 B식에 해당하고, 동사 뒤에 사용되면 C식에 해당한다.

- (22) a. 在老張家發生了一件事。(呂叔湘의 예)
 (라오장의 집에서 일이 일어났다.)

- b. 事情發生在老張家。(呂叔湘의 예)
 (일은 라오장의 집에서 일어났다.)

예(22a)와 예(22b)에서, ‘在老張家’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다. 따라서 ‘在’자구는 예(22a)처럼 술어 동사 ‘發生’의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예(22b)처럼 술어 동사 ‘發生’의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

셋째, 문장이 동작이 도달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在+NP’는 동사 뒤에 사용된다. 즉, ‘삼분법’의 C식에 해당한다.

- (23) 行李寄存在你家。(呂叔湘의 예)
 (짐은 당신 집에 보관되었다.)

예(23)에서, ‘在你家’는 서술 동사 ‘寄存’가 도달한 장소이다. 따라 ‘在’ 자구가 동사 뒤에 나타나야 문장이 성립된다.

또한, 戴浩一은 특별히 “두 절의 상대적 순서는 그들이 나타내는 개념 영역 안의 상태의 시간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지적했다.

- (24) a. 小猴子在馬背上跳。(戴浩一의 예)
 (작은 원숭이가 말 등에서 뛰었다.)
 b. 小猴子跳在馬背上。(戴浩一의 예)
 (작은 원숭이가 말 등에 뛰어 올랐다.)

예(24a)와 (24b)에서 주어는 모두 ‘小猴子’이며, ‘在’자구는 ‘在馬背上’, 동사는 ‘跳’이다. 하지만 두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는 다르다. 예(24a)는 B식을 사용하여 ‘在+NP’구조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위치시켜, ‘小猴子’가 ‘在馬背上’에 있는 상태가 동작 ‘跳’의 시작 전에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예(24b)는 C식을 사용하여 ‘在+NP’를 동사 뒤에 배치해, ‘小猴子’가 ‘在馬背上’상태가 동작 ‘跳’

가 일어난 후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在’자구를 B식으로 사용하든 C식으로 사용하든, 이 두 문장은 개념 영역에서 시간 순서의 원칙을 따른다.

2.2.1.3 ‘在’자문의 인지화용론적 영향 요소

통사적 요소와 의미적 요소 외에도, ‘在+NP’인 ‘在’자문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화용적 요소도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법 연결의 필요성

(25) 小夥子遲疑了一會兒，一步跨到前面，迎著風雨刮來的方向，像擋風的牆一樣站著。

在他寬大的身軀後面，老頭、姑娘和中年婦女慢慢擠到了一起。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한 걸음을 내디더 앞으로 나아가 바람과 비가 부는 방향을 향해 방풍벽처럼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몸 뒤에서 노인, 처녀, 중년 여성이 서서히 모여들었다.)

예(25)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복문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在’자구를 사용하였고, 이는 ‘在他寬大的身軀後面’를 나타낸다. 이 장소 표현(NP)는 첫 번째 문장의 구성 요소 ‘小夥子’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他寬大的身軀’은 앞 문장을 이어주며, 명사 ‘小夥子’를 대명사 ‘他’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대화의 연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이 두 개 동일 대상을 공간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서 ‘在+NP’는 앞 문장을 이어 받아 문장 초반에 위치하며, 문장은 ‘삼분법’중 A식을 사용한다.

둘째, 통사 구조의 필요성

(26) 在新兵連，他當過我的班長；在艦上，我當過他的班長。

(신병 연대에서, 그는 내 분대장을 맡았다. 함선에서는, 나는 그의 분대장을 맡았다.)

(27) 他在學校教我數學；我在公司教他編程。

(그는 학교에서 나에게 수학을 가르쳤고, 나는 회사에서 그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다.)

예(26)에서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오는 두 개의 ‘在’자구를 사용했다. 즉, ‘在新兵連’와 ‘在艦上’이다. 예(27)에서는 대화의 연속성과 상황이 서로 연결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종 비슷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여 대화를 전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렬 문장 그룹 내에서 ‘在’자구의 위치 배치는 더 이상 고립되거나 임의적이지 않으며, 예(26)처럼 앞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모두 앞에 배치하거나, 예(27)처럼 뒤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모두 뒤에 배치하는 일관된 패턴으로 보여진다.

2.2.1.4 ‘在’ 자문의 기타 영향 요소

아울러, 다른 요인들도 ‘在+NP’의 위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在+NP’의 앞과 뒤에 나타나는 동사는 음절 수에 따라 일정한 제약이 있다. 단음절 동사는 대부분 ‘在+NP’ 앞에 배치할 수 있지만, 이 음절 동사는 대부분 ‘在’자구를 앞에 배치할 수 없다. 즉, 단음절 동사는 ‘삼분법’의 C식을 사용하며, 이음절 동사는 ‘삼분법’의 A식이나 B식을 사용한다.

(28) 他躺在床上。(范繼淹의 예)

(그는 침대에 누워 있다.)

(29) 在磁帶上錄音。(范繼淹의 예)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한다.)

예(28)에서, 서술어 동사는 ‘躺’이며 단음절 동사에 속한다. 따라서, 단음절 동사

는 ‘在+NP’의 앞에서 제한 없이 나타난다. 반면에 “*他在床上躺。” 는 올바르지 않다. 예(29)에서, 서술어 동사는 ‘錄音’이며 이음절 동사에 속한다. 따라서, ‘在+NP’의 앞과 뒤 위치에서, 이음절 동사는 뒤의 위치를 더 선호한다. 반면에 “*錄音在磁帶上。” 는 올바르지 않다.

둘째, ‘在+NP’구조 자체가 길 때, 전체 문장의 균형을 위해 일반적으로 ‘在+NP’구조를 문장의 처음에 두는 것이다. 즉, ‘삼분법’의 A식을 사용한다.

- (30) 在燈火通明的地鐵車廂裏，她靠著我的肩頭睡著了。(王一平的 예)
 (조명이 밝은 지하철 칸에서,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 (31) 在一架剛剛飛走的波音飛機的空當上，一架‘三叉戟’滑了過來，接上客橋。
 (방금 날아간 보잉 항공기의 공간에, ‘트라이던트’라는 항공기가 슬라이딩 해 와서 승객 다리에 연결되었다.)

예(30)에서, ‘在’구조는 ‘在燈火通明的地鐵車廂裏’이고, 예(31)에서, ‘在’구조는 ‘在一架剛剛飛走的波音飛機的空當上’이다. 이 두 예에서 ‘在’구조는 모두 긴 텍스트에 속한다. 이렇게 긴 구조를 문장 중간에 두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동사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문장 분석에 불리하다. 따라서, ‘在+NP’구조를 문장의 맨 앞에 두는 A식을 사용하여, 그 뒤의 전체 문장을 지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2.2.2 ‘在’자문의 동사 연구

‘삼분법’의 A식, B식 및 C식에서, A식과 B식은 동사에 대한 제한이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들을 A식과 B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C식은 동사의 사용이 까다로워 동사 자체의 제한으로 인해 C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동사도 있다. 다시 말해, A식, B식, C식의 차이는 구조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사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구체적

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32) a. *書在桌上放。(아래 예는 施靜雯의 예다)
(*책이 책상 위에 놓다.)
a' 書在桌上放著。
(책이 책상 위에 놓였다.)
a" 書放在桌上。
(책이 책상 위에 있다.)
- (33) a.* 畫在牆上貼。
(*그림이 벽에 붙어 있다.)
a' 畫在牆上貼好了。
(그림이 벽에 잘 붙어졌다.)
a" 畫貼在牆上。
(그림이 벽에 붙었다.)
- (34) a. 魚在水裏遊。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친다.)
a' 他在樓上住。
(그는 건물 위층에서 산다.)

문법 구조상으로 볼 때, (32a)와 (33a)는 모두 ‘在’자구가 문장 중간에 배치된 B형식을 사용하며, 이는 ‘在’가 주어와 서술어 동사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두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렸다. 하지만 동사 뒤에 시제 조사 ‘着’또는 결과 보완 ‘好’과 시제 조사 ‘了’를 추가하면 (32a')와 (33a')처럼 문장이 성립된다. (32a")와 (33a")는 모두 ‘在’자구문이 문장 끝에 배치된 C형을 사용하며, 이는 ‘在’가 문장 중간에 위치한 서술어 동사 뒤에 사용되며, 어떠한 제약 없이 문장이 성립된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동사가 있는 B형식 문장도 (34a)와 (34 a')처럼 모두 성립하는데, 이는 (32a)의 ‘書’와 (33a)의 ‘畫’가 주어로서 받는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34a)의 ‘魚’와 (34 a')의 ‘他’는 주어로서 행위를 주는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NP(대상)+PP+VP’구조는 올바르지 않은 반면, ‘NP(대상)+PP+VP+着/好了/기타 보완’구조는 허용된다. 또한 ‘NP(대

상)+VP+PP’와 ‘NP(행위자)+PP+VP’구조도 모두 올바른 문장 구조이다. 즉, 주어+ 행위사 주어 또는 대상 주어이지만 동사 뒤에 추가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B식을 사용해야 하고, 동사 뒤에 추가 요소가 없는 경우 C식을 사용해야 한다.

즉, 동사의 형태에 따라 문장 구조가 B식인지 C식인지 결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식 문장을 직접 만들어 분석해 보겠다. 예를 들어, 기본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 ‘*在桌上, 书放.’ 또는 ‘*在墙上, 画贴’와 같은 문장은 올바르지 않는다. 하지만 ‘在桌上, 书放着.’ 또는 ‘在墙上, 画贴好了’와 같이 복잡한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 문장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이를 통해 A식이나 B식에서 사용되는 동사 형태와 C식에서 사용되는 동사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范繼淹(1982)은 그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단음절 동사는 C식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음절 동사는 C식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동사의 특성을 기준으로 ‘在’자문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후 李臨頂(1988), 孫錫信(1991)은 음절 수가 C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사가 지닌 의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완했다. ‘在’자문장 형식 선택에서 동사 문제에 대한 분석은 특히 侯敏(1992)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이다.

侯敏(1992)은 논문에서 ‘在’자문에 관련된 동사를 세 가지 유형, 순간 동사, 동작-상태 동사, 동작-지속 동사로 분류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하위 분류를 진행하였다.⁹⁾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侯敏(1992)문장 내 동사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유형	분류	동사
瞬間動詞	a. 瞬間動作	摔、跌、掉……
	b. 瞬間狀態變化	死、破、碎、失落……
動作 - 狀態動詞	a. 不及物的	躺、站、坐、蹲、趴、臥、立、豎、停、藏、粘、躲、跪、排、佇立、兀立……
	b. 及物的	掛、貼、系、埋、插、舉、壓、攔、鎖、吊、栓、安、抓、擺、放、留、關、埋葬、安插、高懸、寄存、保留、安裝……

2.2.2.1 A식과 B식에서 ‘VP’의 제한 분석

첫 번째 유형인 순간 동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번의 행위를 나타내는 순간 동사는 일반적으로 B식에서 사용할 수 없다. 순간적으로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순간 상태 변화 동사는 B식에서 사용할 때 뒤에 ‘了’를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35) a. *手機在地上掉了。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b. 杯子在地上碎了。
 (컵이 바닥에서 깨졌다.)

예(35a)에서 동사 ‘掉’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며, 예(35b)에서 동사 ‘碎’는 순간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 분류에 따른 제한으로,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B식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순간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뒤에 ‘了’를 붙여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인 동작-상태 동사의 경우, 동작의 완료 여부에 따라 A식 또는 B식을 사용해야 한다. 완료된 동작은 A식에서, 진행 중인 동작 또는 상태는 B식에서 사용한다.

動作—持續 動詞	有 空 間 影 響 的	a. 不及物的	走、跑、跳、飄、托、睡、住、飛、升、流、漂浮、漂泊、跋涉、奔馳、傾瀉、遊蕩、棲息、奔忙、漫步、居住、定居……
		b. 及物的	寫、釘、扔、穿、砍、打、紮、吐、劃……、抽、抄、踢、記、澆、安排、網羅、集中、建設、記錄、登記、使用、應用、整理
	沒 有 空 間 影 響 的	a. 不及物的	哭、笑、玩、吵、鬧、遊戲、玩耍、遊覽、洗澡、踱步、作孽、過夜、打滾、講課、露面…
		b. 及物的	玩、尋、惹、做、讀、說、談、洗、叫、喊、聽、看、喝、吃、罵、問、謝、求、催、誇、教、打扮、抨擊、聽說、出售……

(36) a. 寶寶在沙發上站起來。

(아기가 소파에서 일어섰다.)

b. 小狗在地上躺著。

(강아지가 바닥에 누워 있다.)

(37) a. 書在書架上插著。

(책이 책장에 꽂혀 있다.)

b. 在中國，人們保留著中秋節賞月的習俗。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중추절 달을 감상하는 풍습을 유지하고 있다.)

예(36a)에서 동사 ‘站’와 (36b)예시에서 동사 ‘躺’는 모두 자동사이며, 예(36a)의 주어 ‘寶寶’와 (36b)예시의 주어 ‘小狗’는 모두 동사의 행동을 발생시키는 행위자 주어에 속한다. 문장 내 동사가 자동사이고 주어가 행위자 주어일 때, 일반적으로 동사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36a)에서 ‘站’뒤에 방향 보완어 ‘起來’를 추가하거나, (36b)에서 ‘躺’뒤에 ‘着’를 추가하여야만 B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37a)에서 동사 ‘插’와 (37b)예시에서 동사 ‘保留’는 모두 타동사이며, (37a)에서 주어 ‘書’은 동작의 수용자로서 대상주어에 속하고, (37b)에서 주어 ‘人們’은 동작을 발생시키는 주체로서 행위자 주어에 속한다. 문장 내 동사가 타동사일 때, 대상주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37a)예시처럼 동사 뒤에 ‘着’를 추가하고, 행위자 주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37b)예시처럼 동사 뒤에 ‘着’를 추가한 후 목적어 성분을 더해야만 B식이나 A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셋 번째 유형인 동작-지속 동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제약 없이 B식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8) a. 妹妹在房間裏哭。

(여동생이 방에서 울고 있다.)

b. 妹妹在房間裏哭了。

(여동생이 방에서 울었다.)

예(38)의 동사 ‘哭’은 지속 동사로 분류된다. 주어 ‘妹妹’는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행위자 주어에 속한다. ‘哭’은 예(38a)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예(38b)에 ‘了’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법이 비교적 자유롭고 특별한 제약이 없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구성 요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2.2.2 C식에서의 ‘VP’ 제한 분석

첫 번째 유형인 순간동사에서는 C식에서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39) a. 手機掉在地上。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b. 那個人死在山上。

(그 사람이 산 위에서 죽었다.)

예(39a)에서 동사 ‘掉’는 순간적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반면, 예(39b)에서 동사 ‘死’는 인간이 순간적으로 사망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이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C식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동작-상태 동사에서는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에 따라 C식에서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40) 寶寶躺在嬰兒床上。

(아기가 유아침대에 누워 있다.)

(41) a. 照片(被)貼在牆上。

(사진이 벽에 붙어 있다.)

b. 爸爸把照片貼在客廳的牆上。

(아빠가 사진을 거실 벽에 붙였다.)

c. 爸爸貼一張照片在客廳的牆上。

(아빠가 거실 벽에 한 장의 사진을 붙였다.)

예(40)의 동사 ‘躺’는 자동사로, C식에서의 사용에 큰 제한이 없다. 예(41)의 동사 ‘貼’는 타동사이며, C식에서 사용되는 경우, (41a)와 같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동사를 강조할 수 있다. 또는 예(41b)와 같이 ‘把’자문을 사용하여 장소를 강조할 수 있다. 또는 예(41c)처럼 명사를 구체화하기 위해 목적어 앞에 수사를 사용할 수 있다.

셋 번째 유형인 동작-지속 동사에서는 동작의 지속성과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를, 그리고 동작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C식에서의 사용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2) 爸爸看完電視睡在客廳裏。

(아빠가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거실에 잠들었다.)

(43) a. 字(被)寫在黑板上。

(글자가 칠판에 쓰여 있다.)

b. 老師把字寫在黑板上。

(선생님이 글자를 칠판에 썼다.)

c. 老師把一行字寫在黑板上。

(선생님이 한 줄의 글자를 칠판에 썼다.)

(44) a. *妹妹哭在房間。

(*여동생이 방에서 울고 있다.)

b. *弟弟玩在遊樂園。

(*남동생이 놀이공원에서 노는 중이다.)

예(42)의 동사 ‘睡’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C식에서 큰 제약이 없다. 예(43)의 동사 ‘寫’는 타동사이며, C식에서 사용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표

현 방식을 활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예(43a)와 같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동작의 주체를 명확하게하거나 동작 자체를 강조할 수 있다. 또는 예(43b)와같이 ‘把’절을 사용하여 장소를 강조하거나 동작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예(43c)와 같이 명사 앞에 수사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구체화하거나 동작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예(42) 예시의 ‘睡’든 예(43)의 ‘写’든 모두 공간적 영향을 미치는 동사이다.

예(44a) 동사 ‘哭’는 자동사이고, 예(44b)의 동사 ‘玩’타동사이지만, C식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哭’와 ‘玩’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2.3 소결

이상 ‘在’자문에 대한 통사론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삼분법’에 따라 ‘在+NP’ 구문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표면 위치를 기준으로 A식, B식, C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유형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A식은 ‘PP+NP+VP’로 단순화되며 즉, ‘在+NP’구조가 문장 맨 앞, 주어 앞에 위치하고, 그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타난다. B식은 ‘NP+PP+VP’로 단순화되며, 즉 ‘在+NP’구조가 문장 중간에 주어 뒤, 동사 앞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C식은 ‘NP+VP+PP’로 단순화되며 즉, ‘在+NP’구조가 문장 맨 뒤, 동사 뒤에 위치한다.

둘째, 통사적 측면에서 볼 때, A식 ‘PP+NP+VP’에서 첫 번째 층차의 직접 구성 요소는 PP와 뒤의 절으로, 이들 사이는 수식 관계이다. 두 번째 층의 직접 구성 요소는 NP와 VP로, 이들 사이는 주술 관계이다. ‘PP+NP+VP’구조는 실제로 NP+VP의 일종의 확장 형태이다. 다음으로, B식 ‘NP+PP+VP’에서 첫 번째 층차의 직접 구성 요소는 NP와 뒤의 절로, 이들 사이는 주술 관계이다, 두 번째 층의 직접 구성 요소는 PP와 VP로, 이들 사이는 수식 관계이며, PP와 VP의 관계는

NP와 PP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다. PP는 VP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NP 부분을 제거하고 PP+VP 부분만 나타나도 문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그러나 두 문장에서 PP 부분을 제거하고 NP+VP 부분만 유지하면 문장은 성립하지만 의미가 변한다. 마지막으로, C식은 ‘NP+VP+PP’에서 첫 번째 층차의 직접 구성 요소는 앞의 절과 PP로, 이들 사이는 서술 보완 관계이다. 두 번째 층차의 직접 구성 요소는 NP와 VP로, 이들 사이는 주술 관계이다.

	첫 번째 층차 나눔	첫 번째 층차 관계	두 번째 층차 나눔	두 번째 층차관계
A식PP+NP+VP	PP와NP+VP	편정관계	NP와VP	주술관계
B식NP+PP+VP	NP와PP+VP	주술관계	PP와VP	수식관계
C식NP+VP+PP	NP+VP와PP	술보관계	NP와VP	주술관계

셋째, A식 ‘PP+NP+VP’와 B식은 ‘NP+PP+VP’ 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의미와 지향 대상이 동일한 경우 두 구조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미가 다를 경우 A식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B식으로 교환할 수 없다. 또한 A식 ‘PP+NP+VP’의 PP는 층차 구조에서 외층 구조이므로 PP+(NP+VP)로 분석해야 하며, PP는 문장 뒤에 있는 전체 주술 구조(NP+VP)를 수식한다. 반면 B식 ‘NP+PP+VP’의 PP는 층차 구조에서 내층 구조이므로 NP+(PP+VP)로 분석해야 하며, PP는 뒤에 있는 VP 부분을 수식한다.

넷째, ‘在’자구의 어순 문제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在’자구의 통사적 영향 요소, ‘在’자구의 의미적 영향 요소, ‘在’자구의 화용적 영향 요소 및 기타 요소 등이 있다. 통사적 영향 요소에서는 주로 1) ‘被’자문이거나 주어가 수동적인 문장, 2) 문장 중 동사가 중복되는 형태의 문장, 3) 문장 중 동사가 보어를 포함한 문장, 4) 문장 중 동사가 직접 목적어를 동반한 문장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의미적 영향 요소에서는 주로 1) 문장이 행동 발생이나 사물 존재의 장소를 지향할 때, 2) 문장이 출생, 발생, 생산 또는 구류의 장소를 지향할 때, 3) 문장이 행동의 도달 장소를 지

향할 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화용적 영향 요소에서는 주로 1) 대화의 연결이 필요할 때, 2) 문장 구조가 필요할 때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타 요소에서는 주로 1) 동사의 음절 수에 따른 제약, 2) '在'자구자체의 길이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3장 ‘在’자문의 의미론적 분석

문법 연구에서의 의미 측면은 문장에 대한 의미 분석을 가리킨다. 문장 속 단어와 객관적 사물(기호와 내용)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의미론적(semantical)으로 분류된다. 문장의 의미는 문장 내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장 내의 각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의미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¹⁰⁾

중국어 문법에서 ‘의미 지향’의 영어 표현은 Semantic Orientation으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로 이해된다. 그중 좁은 의미의 ‘의미 지향’은 문장 내 특정 구문 성분이 어느 성분과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문장 내 특정 성분의 의미 지향을 분석하여 어떤 문법 현상을 밝히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 분석 기법을 ‘의미 지향 분석’이라고 한다. 책에서는 부사의 의미 지향 문제가 매우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다. 중국어에서 부사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 부사가 의미상 특정 성분 하나만을 지향할 수는 없다.¹¹⁾

또한,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는 현상은 언어학 연구의 주요 현상 중 하나이다. 인지 의미학은 이미지 체계와 그에 따른 은유, 전유를 통해 한 단어의 여러 의미 항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여 다의성 현상을 잘 설명한다. 인지 의미학은 인간의 공간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는 인간의 사고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 신체 경험, 자연 환경의 조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기본적인 이미지 체계가 형성되고, 은유와 전유를 통해 물리적 공간 개념이 다른 추상적 개념 구조로 매칭되어, 본래 공간 내용이 없던 다른 개념들도 공

10) 胡裕樹·範曉(1985:3) 참조.

11) 陸儉明(2003:142-144, 158) 참조.

간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한 단어의 의미는 다양한 인지 영역에서 사용되면서 서로 연결된 다의성을 가지게 된다. 인지 의미학은 이러한 이미지 체계의 은유적 매핑이 한 단어 다의성 관계를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본다. 언어 중의 한 단어 다의성 현상을 분석하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at'은 물리적 공간에서 시간, 상태, 방식, 원인 등으로 매칭되어 다의성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at the station (장소), at five o'clock(시간), at war(상태), aim at(방향), at high speed(방식) 등.¹²⁾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在'자구 내의 '在' 또한 영어의 'at'과 유사한 전형적인 한 단어 다의성 현상에 속한다. 영어의 설명에 따라 중국어 '在'의 다의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在學校(장소), 在上午十点(시간), 在緊張的局勢中(상태), 在向南方行駛時(방향), 在悄悄地進行時(방식)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제2장의 문법을 기반으로, 주로 의미 분석 중 의미 지향 분석법, 변환 분석법 등을 통해 현대 중국어 '在'의 다의성 현상과 '在'자문에 대한 의미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3.1 '在'자문의 의미 표현

3.1.1 A식 (PP+NP+VP)의 의미 표현

A식(PP+NP+VP)에서, PP는 '在+NP'구조가 문장의 시작 부분, 주어 앞에 위치한다. A식이 표현하려는 의미에 대해, 范繼淹(1982)은 A식의 문법적 의미가 전체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명확히 지향하는 데 있다고

12) 趙豔芳(2004:77)참조.

지적한 바 있다.¹³⁾

A식(PP+NP+VP)에서 PP는 ‘在+NP’구조의 시작에 위치하며 주어 앞에 있다. A식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 范繼淹(1982)은 A식의 문법적 의미가 전체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명확하게 지향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 (1) 在花壇的中央，我們裝了一個噴泉。(范繼淹의 예)
(꽃밭 가운데에 우리는 분수를 설치했다.)

예(1)에서 문장 첫 부분에 위치한 ‘在+NP’구조, 즉꽃밭 가운데에 우리는 분수를 설치했다. ‘在花壇的中央’은 뒤에 나오는 ‘我們裝了一個噴泉’사건이 일어난 장소이다. 즉, ‘在花壇的中央’이라는 장소에서 ‘裝了噴泉’라는 사건을 완료했다는 의미이다.

이때, 문장의 술어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에 따라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타동사 문장에서는 PP가 사건 참여자가 위치한 장소와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으며, 맥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 자동사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사건 참여자가 있는 장소이다.¹⁴⁾

- (2) 在這個世界上，只有自己才能保護自己。
(이 세상에서는 자신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3) 在這兒，我休息一會兒。
(여기서 잠시 쉬겠다.)

13) 范繼淹(1982:78) 참조.

14) 范繼淹(1982:79) 참조.

예(2)에서의 술어 동사는 ‘保護’로, 타동사 범위에 속하며, 보호받는 ‘人或物’을 뒤에 둘 수 있다. 이 예제에서 ‘在這個世界上’는 전체적인 범위만을 나타내며, 사건의 참여자인 ‘自己’이 있는 구체적인 장소와 위치를 정확히 지향할 수 없다. 말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발언자가 ‘韓國’이든 ‘中國’이든, 심지어 더 작은 장소에 있든 간에, 모두 큰 범위인 ‘這個世界’안에 포함된다. 예제 (3)에서의 술어 동사는 ‘休息’로, 자동사에 속하며, 이 예제에서 ‘在這兒’는 주어인 ‘我’, 즉, 사건의 참여자가 있는 장소이자 ‘休息’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로, 두 장소가 하나로 합쳐진다.

또한, A식에서 문장의 시작 부분에 위치한 ‘在+NP’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¹⁵⁾

첫째,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나타나는 경우를 표현한다.

- (4) 在西郊某工地, 我從一個包工頭那裏了解到, 雇工與雇主之間有一個‘生死合同’。
 (서쪽 교외의 어느 공사 현장에서, 나는 한 공사판의 대장으로부터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생사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4)에서 ‘在+NP’구조 즉, ‘在西郊某工地’가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며, 그 뒤에 이어지는 전체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나는 한 공사판의 대장으로부터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生死合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건이 ‘在西郊某工地’ 발생한 것이다. 전체 사건이 길기 때문에, ‘在+NP’구조를 문장의 시작에 두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사건 내용을 설명한다.

둘째,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 (5) 在美國, 無論是城郊住宅區, 還是城市的公園裏, 能見到野生的各種鳥類、松鼠等絕

15) 張穎(2007:4) 참조.

不稀罕，它們大膽地在人們周圍活動、覓食。

(미국에서는 도시 교외의 주거지역이든 도심의 공원이든, 다양한 야생 조류나 다람쥐 같은 동물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들은 사람들 주변에서 대담하게 움직이며 먹이를 찾는다.)

제(5)에서 ‘在+NP’구조는 두 번 사용되었다. 첫 번째 ‘在美國’은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여 뒤이어 나오는 긴 복문이 서술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다. 복문은 글자 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在+NP’구조를 문장의 시작에 두어 먼저 서술할 대상을 지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두 번째 ‘在人們周圍’는 그 뒤에 나오는 야생 조류, 다람쥐 등이 ‘活動、覓食’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1) 유형에 속한다.

俞詠梅(1999)는 ‘在+장소’의 의미 지향을 바탕으로, 문법적 의미 관점에서 볼 때, ‘PP+NP+VP’(본 논문의 A식에 해당) 구조 내에서 ‘在+장소’의 문법적 의미 기능이 ‘NP+PP+VP’(본 논문의 B식에 해당)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며, 그 어순은 B식의 화용적 변화로 본다. 俞詠梅는 본 논문에서 언급된 A식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俞詠梅는 개인적으로 A식을 B식의 화용적 변화로 보는 경향이 있다.

(6) a. 在這兒，我休息一會。(俞詠梅의 예)

(여기서, 나는 잠시 쉬겠다.)

b. 我在這兒休息一會兒。

(나는 여기서 잠시 쉬겠다.)

예(6a)는 앞서 인용된 예(3)으로, A식에 속하며 예(6b)는 B식에 속한다. 여기서 예(6a)는 예(6b)의 언어적 변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예에

서 ‘在這兒’가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는 A식이든 문장 중간에 위치하는 B식이든 그 문법적 의미 기능은 완전히 같다. 즉, 전치사구의 위치 변화는 문법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것은 오직 언어적 측면뿐이다.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면, 俞詠梅는 문법적 의미의 관점에서 이 글의 A식과 B식에 해당하는 문장의 문법적 의미 기능을 탐구한다.

종합해보면, 문장에서 동사가 타동사든 자동사든 간에, A식(PP+NP+VP)에서는 ‘在+NP’구조가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여 그 문법적 의미는 뒤에 나오는 전체 사건이나 동작이 발생하고 나타나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뒤에 이어지는 서술과 묘사의 대상을 지향하는 데 사용된다.

3.1.2 B식(NP+PP+VP)의 의미표현

B식(NP+PP+VP)에서는 PP 즉, ‘在+NP’구조가 주어 뒤, 서술어 동사 앞에 위치한다. 范繼淹(1982)에서는 B식이 표현하는 의미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B식에서 ‘在+NP’의 의미 기능은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나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명확히 지향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문장에서 서술어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와 자동사인 경우를 다르게 분석하였는데, 타동사 문장에서는 PP가 동작 발생의 장소를 지향하고, 자동사 문장에서는 동사의 의미 범주에 따라 PP가 동작 발생의 장소 또는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각각 지향하였다.¹⁶⁾

- (7) 我在鐵絲上晾了幾件衣服。
 (나는 철사에 몇 벌의 옷을 널었다.)
- (8) 他在溜冰場摔了。(范繼淹의 예)
 (그는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졌다.)

16) 范繼淹(1982:79) 참조.

(9) 孩子在床上醒了。(范繼淹의 예)

(아이는 침대에서 깨어났다.)

예(7)의 서술어 동사 ‘瞭’는 타동사로, ‘人或物’을 뒤에 둘 수 있어 ‘瞭’의 대상을 나타낸다. 이 예에서 ‘在鐵絲上’는 ‘瞭’라는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로 ‘在鐵絲上’는 ‘瞭’라는 동작을 완성한다. 예(8)의 서술어 동사 ‘擰’와 예(9)의 서술어 동사 ‘醒’는 모두 자동사로, 예(8)에서 동작 ‘擰’의 행위자는 ‘他’, 이며, 동작 ‘擰’가 일어난 장소는 스케이트장이다. 이 예에서 ‘在溜冰場’는 동작이 발생한 장소를 지향한다. 예(9)에서 ‘醒’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며, ‘在床上’는 이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지향한다.

많은 학자들이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王還(1957, 1980)은 ‘在+NP+VP’구조에서 ‘在+NP’가 행동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戴浩一(Tai 1975, 1985)은 이 글에서의 B식이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표현한다고 보았다. 齊滬揚(1999) 역시 B식이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예, “他在北京住。”)에서 어떤 상태의 물체가 특정 위치에 머무르는 것을 나타내며, 상태의 지속을 표현한다고 한다. 반면에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예, “他在黑板上寫字。”)에서는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 또는 ‘동작이 도착하는 장소’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종합해보면, 문장의 동사가 타동사이든 자동사이든 간에, B식(NP+PP+VP)에서 ‘在+NP’구조가 문장 중에 위치할 때, 그 문법적 의미는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나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3.1.3 C식(NP+VP+PP)의 의미표현

C식(NP+VP+PP)에서는 PP, 즉 ‘在+NP’구조가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 范繼淹(1982)은 C식에서 ‘在+NP’의 의미가 동작이 도달하는 장소

나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명확히 지향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장의 서술어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에 따라 다른 분석을 제시했다. 타동사 문장에서는 PP가 동작 자체가 도달하는 장소를 지향하며, 자동사 문장에서는 동사의 의미 범주에 따라 PP가 동작 도달의 장소나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각각 지향한다는 것이다.¹⁷⁾

(10) 我們開了一個氣窗在東牆上。(范繼淹의 예)

(우리는 동쪽 벽에 환기 창을 설치하였다.)

(11) 他一下子就暈倒在地上了。

(그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12) 這輛車停在商店門口一個多小時了。

(이 차는 상점 입구에서 한 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었다.)

예(10)의 서술어 동사 ‘開’는 타동사로, 동작의 대상을 뒤에 둘 수 있다. 이 예에서 ‘在東牆上’은 ‘開’라는 동작이 도달한 장소를 나타내며, ‘開氣窗’이라는 동작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장소이다. 예(11)과 예(12)의 서술어 동사는 자동사이다. 예(11)에서 ‘暈倒’는 순간적인 동작 동사로, ‘在地上’은 동작이 도달한 장소를 표현하며, ‘他’, ‘暈倒’이라는 동작을 거쳐 ‘在地上’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12)에서 ‘停’는 연속적인 동작 동사로, ‘在商店門口’는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표현하며, ‘車’가 ‘商店門口’에서 ‘停’이라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朱德熙(1984)는 ‘VP+在+NP’형식의 문법적 의미가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위치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王還(1957, 1980)은 C식의 문법적 의미가 사람이나 사물이 동작을 통해 도달한 장소를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戴浩一(Tai 1975, 1985)은 본문의 C식의 문법적 의미가 물체가 움직여 도달한 장소를 나타낸다고 본다. 齊滬揚(1999)은 C식이 어떤 상

17) 范繼淹(1982:83)참조.

태의 물체가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며, 상태의 지속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예시, 一幅畫掛在牆上)

아울러, 俞詠梅는 본문에서 B식과 C식의 문법적 의미 기능에 대해 언급했다. 문장에서는 문법적 의미 관점에서 장소 범주의 자연스러운 어순이 표면적으로 두 가지 분포를 갖는다. ‘NP+장소+VP’(본문의 B식에 해당)와 ‘NP+VP+장소’(본문의 C식에 해당). 동작을 가하는 문장에서, ‘在+NP’의 의미 기능은 C식 어순에서 단지 방향의 [중점]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타동사에서는 받는 사물의 [중점]을 강조한다.

(13) 猴子跳在馬背上。

(원숭이가 말등에 뛰어올랐다.)

(14) 他把餃子撈在鍋裏。

(그는 만두를 솥 안으로 건져

예(13)과 예(14)에서 ‘在+NP’는 모두 문장 끝에 위치하며, C식에 속한다. 예(13)에서 ‘在馬背上’는 원숭이가 ‘跳’라는 동작을 통해 도달한 [중점]이다. 문장은 원숭이가 ‘跳’시작한 ‘出發點’을 밝히지 않고 오직 최종적인 ‘終點’만을 강조한다. 예(14) 역시 마찬가지로, ‘撈’라는 동작을 통해, ‘餃子’의 최종 ‘終點’은 ‘在鍋裏’이다. ‘餃子’가 어디에서 건져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종합해보면, 문장에서 동사가 타동사이든 자동사이든 간에, C식(NP+VP+PP)에서 ‘在+NP’구조가 문장의 끝에 위치할 때, 그 문법적 의미는 동작이 도달한 장소나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3.2 ‘在’자구의 의미지향적 분석

邵洪亮·郭洪国(2001)은 ‘在’의 품사 분화에서 의미 지향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在’의 품사를 세분화하였다. 논문에서는 ‘在’자구에서 의미 지향이 앞 지향, 뒤 지향, 쌍지향, 무지향의 네 가지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의미 지향의 차이가 의미 기능의 차이를 결정하며, 이로 인해 관련 문장 형식이 다른 변형 형태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在’가 단일 지향이나 이중 지향일 때는 구조체 내의 ‘在’가 동사로, 뒤 지향이나 무지향일 때는 ‘在’가 전치사로 작용한다.

3.2.1 A식(PP+NP+VP)의 의미지향적 분석

A식에서는 PP, 즉 ‘在+NP’구조가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며,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다른 구성 요소들은 모두 그 뒤에 위치한다. 따라서 A식에서 ‘在’구조의 의미 지향은 오직 후향성 하나만을 가진다. A식에서 ‘在’절이 구체적으로 문장 뒤의 어느 하나나 몇 개의 구성 요소를 지향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단일 지향이며 주어나 동사, 혹은 목적어를 가리킨다.

- (15) 在這個家裏,我常常感到孤獨和無助。
(이 집에서, 나는 자주 외롭고 무력함을 느낀다.)
- (16) 在詩裏,他把她的美色吹上了天。(申敬善의 예)
(시에서, 그는 그녀의 미모를 극찬했다.)
- (17) 在我印象中,她一直是個醜女孩的形象。
(내 인상 속에서, 그녀는 항상 못생긴 여자아이의 모습이었다.)

둘째, 이중 지향이며 주어와 동사 혹은 동사와 목적어를 가리킨다.

- (18) 在這裏, 江澤民與自己的老師顧毓秀教授相逢。(申敬善의 예)
(여기에서 장쩌민과 그의 스승인 구위쇼우 교수가 만났다.)
- (19) 在一本比利時短篇小說集裏, 我無意間見到這樣的句子:……
(벨기에 단편 소설집에서, 나는 우연히 이런 문장을 보았다: ……)

예(18)에서의 ‘在’자구, 즉 ‘在這裏’는 주어 ‘江澤民與自己的老師顧毓秀教授가’ 있는 장소이며, 서술어 ‘相逢’가 일어난 장소도 표현한다. 예(19)에서의 ‘在’자구는 ‘在一本比利時短篇小說集裏’로, 주어 ‘我’의 위치가 아니라 목적어 ‘這樣的句子’이 있는 장소이며, 서술어 ‘見到’가 발생한 장소를 나타낸다. 이 두 예는 모두 이중 지향의 경우로, 각각 주어, 서술어 동사 또는 서술어 동사, 목적어를 지향한다.

셋째, 삼중 지향이며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모두 가리킨다.

- (20) 在四壁徒然的中央機關裏, 剛剛燒完的文件還在冒著縷縷青煙。(申敬善의 예)
(사방이 썰렁한 중앙 기관에서, 방금 태운 파일에서 아직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다.)

예(20)에서의 ‘在’자구, 즉 ‘在四壁徒然的中央機關裏’는 주어 ‘剛剛燒完的文件’이 있는 장소이며, 서술어 ‘冒著’가 일어난 장소이자 ‘縷縷青煙’이 일어난 장소도 나타낸다. 예(21)은 주어, 서술어 동사 및 목적어를 동시에 가리키는 세 가지를 지향하는 경우로, 문장의 모든 요소에 걸쳐 ‘在’자구의 의미 지향이 확장되었다.

종합해보면, A식에서 ‘在+NP’의 의미 지향은 오직 후향적이며, 단일 지향, 이중 지향, 삼중 지향으로 구분된다. 단일 지향은 주어나 서술어, 혹

은 목적어 중 하나를 지향하며, 이중 지향은 주어와 서술어 또는 서술어와 목적어를 동시에 지향한다. 삼중 지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두를 동시에 지향한다. 이러한 분류는 문장의 ‘在’자구이 문맥 내에서 어떤 구성 요소와 연결되어 의미를 구체화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3.2.2 B식(NP+PP+VP)의 의미지향적 분석

B식에서는 PP, 즉 ‘在+NP’가 문장 중간에 위치하며, 앞에는 주어가 있고 뒤에는 서술어와 목적어가 위치한다. 그래서 B식에서 ‘在’자구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앞이나 뒤에 지향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구성 요소만을 지향할 수도 있고 여러 구성 요소를 동시에 지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향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단일 지향이며 동사를 가리킨다.

- (21) 她**在我家**放了一套化妝品。
 (그녀는 내 집에 화장품 세트를 두었다.)
- (22) 我們還**在武林門**賃了輛三輪車。
 (우리는 무림문에서 삼륜차를 빌렸다.)

예(21)과 예(22)에서의 ‘在’자구는 각각 ‘在我家’와 ‘在武林門’로, 각각 서술어 동사 ‘放’와 ‘賃’를 지향하며, 이 두 동작이 발생한 장소를 나타낸다. ‘在’자구는 문장의 주어 ‘她’, ‘我們’와는 직접적인 의미 연결이 없으며, 목적어 ‘化妝品’, ‘三輪車’와도 직접적인 의미 연결이 없다. 이 두 예는 모두 단일 지향의 경우로, 문장의 서술어 동사를 지향한다.

둘째, 이중 지향이며 주어와 동사 또는 동사와 목적어를 가리킨다.

(23) 我們每日每夜地在海洋中遊弋, 巡邏, 護航。

(우리는 낮과 밤으로 바다에서 순찰하고, 순찰하며, 호위한다.)

(24) 我們在杭州也有個療養院。

(우리는 항저우에도 요양원이 있다.)

예(24)에서의 ‘在’자구는 ‘在海洋中’로, 주어 我們가 있는 장소이며, 서술어 ‘遊弋, 巡邏, 護航’가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在’자구는 동시에 주어와 서술어 동사와 의미 지향 관계를 가진다. 예(25)에서의 ‘在’자구는 ‘在杭州’로, 서술어 ‘有’와 관련된 장소이며, 목적어 ‘療養院’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주어 ‘我們’가 있는 장소는 아니다. ‘在’자구는 서술어 동사와 목적어와 의미 지향 관계를 가진다. 이 두 예는 모두 이중 지향의 경우로, 각각 주어와 서술어 동사, 혹은 서술어 동사와 목적어를 지향한다.

셋째, 삼중 지향이며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리킨다.

(25) 我在二樓揀了個視野開闊的座位。

(나는 2층에서 시야가 탁 트인 좌석을 골랐다.)

예(25)에서의 ‘在’자구는 ‘在二樓’로, 주어 ‘我’가 있는 장소이며, 서술어 ‘揀’가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장소는 목적어 ‘視野開闊的座位’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在’자구는 동시에 주어, 서술어 동사, 목적어와 의미 지향 관계를 가진다. 이는 삼중 지향의 경우로, 문장의 주어, 서술어 동사, 목적어 모두를 지향하였다.

종합해보면, B식에서 ‘在+NP’구의 의미 지향은 전향적과 후향적 두 가지가 있으며, 단일 지향, 이중 지향, 삼중 지향으로 구분된다. 단일 지향은 ‘在’자구 뒤의 서술어를 지향하고, 이중 지향은 ‘在’자구 앞의 주어와 ‘在’자구 뒤의 서술어를 동시에 지향하거나, ‘在’자구 뒤의 서술어와 목적어를 동시에

지향한다. 삼중 지향은 ‘在’자구 앞의 주어와 ‘在’자구 뒤의 서술어, 목적어 모두를 동시에 지향한다. 이러한 구분은 문장 내에서 ‘在’자구가 어떻게 다른 문장 성분들과 의미적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준다.

3.2.3 C식(NP+VP+PP)의 의미지향적 분석

C식에서는 PP, 즉 ‘在+NP’가 문장 끝에 위치하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다른 구성 요소들은 모두 그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C식에서 ‘在’자구의 의미 지향은 전향적 하나만을 가진다. 즉, ‘在’자구는 문장 앞의 주어, 서술어 또는 목적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와 의미적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의미 지향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분석하겠다.

첫째, 단일 지향이며 서술어 또는 목적어를 가리킨다.

(26) 我也看見了你, 在望遠鏡裏。

(저도 당신을 봤어요, 망원경 속에서.)

(27) 我看見他了, 在另一列火車上。

(저는 그를 봤어요, 다른 열차 위에서.)

예(26)에서 ‘在’자구는 ‘在望遠鏡裏’로, 이는 주어 ‘我’의 위치도 아니고, 목적어 ‘你’의 위치도 아니며, ‘在望遠鏡裏’는 오직 서술어 ‘看見’와 의미 지향 관계를 맺는다. 예(27)에서 ‘在’자구는 ‘在另一列火車上’로 목적어 ‘他’가 있는 장소이지만, 주어 ‘我’의 위치도 아니고 서술어 ‘看見’가 발생한 장소도 아니다. ‘在另一列火車上’는 오직 목적어 ‘他’와 의미 지향 관계를 맺는다. 이 두 예는 모두 단일 지향의 경우로, 각각 문장에서 ‘在’자구 앞의 서술어 동사와 목적어를 지향한다.

둘째, 이중 지향이며 주어와 서술어 또는 서술어와 목적어를 동시에 가리킨다.

(28) 最真切的影子已呈露在作者自己的作品裏。

(가장 진실된 그림자가 작가 자신의 작품 안에 드러났다.)

(29) 老師寫了幾個字在黑板上。

(선생님이 칠판에 몇 글자를 썼다.)

예(28)에서 ‘在’자구는 ‘在作者自己的作品裏’로, 주어 ‘最真切的影子’가 존재하는 장소이며, 서술어 ‘呈露’가 일어난 장소이다. ‘在’자구는 동시에 주어와 서술어와 의미 지향 관계를 맺는다. 예(29)에서 ‘在’자구는 ‘在黑板上’로, 서술어 ‘寫’가 발생한 장소이며, 목적어 ‘幾個字’가 존재하는 장소이지만, 주어 ‘老師’의 위치는 아니다. ‘在’자구는 서술어와 목적어와 의미 지향 관계를 맺는다. 이 두 예는 모두 이중 지향의 경우로, 각각 ‘在’자구 앞의 주어와 서술어, 또는 서술어와 목적어를 지향한다.

셋째, 삼중 지향이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두를 동시에 가리킨다.

(30) 我种了几棵菊花儿在院子里。(范繼淹의 예)

(저는 마당에 몇 그루의 국화를 심었다.)

종합해보면, C식에서 ‘在+NP’구의 의미 지향은 전향적 하나만을 가지며, 단일 지향, 이중 지향, 삼중 지향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지향은 서술어 또는 목적어를 지향하고, 이중 지향은 주어와 서술어 또는 서술어와 목적어를 동시에 지향한다. 삼중 지향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두를 동시에 지향한다.

3.3 소결

이상 ‘在’자문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의미 표현 측면에서 보면, 문장의 동사가 타동사든 자동사든 간에, A식(PP+NP+VP)에서는 ‘在+NP’가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고, 그 문법적 의미는 뒤에 오는 전체 사건이나 동작이 발생하고 나타나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뒤에 이어지는 서술과 묘사의 대상을 지향하는 데 사용된다. B식(NP+PP+VP)에서는 ‘在+NP’가 문장 중간에 위치하며, 그 문법적 의미는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나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C식(NP+VP+PP)에서는 ‘在+NP’가 문장의 끝에 위치하며, 그 문법적 의미는 동작이 도달하는 장소나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둘째, 의미 지향의 방향 측면에서 볼 때, A식에서는 ‘在+NP’의 의미 지향이 오로지 뒤 지향으로만 있다. B식에서는 ‘在+NP’의 의미 지향이 앞 지향과 뒤 지향 두 가지가 있으며, C식에서는 ‘在+NP’의 의미 지향이 앞 지향만 존재한다. 이는 ‘在+NP’가 문장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의미 지향의 방향과 수량을 고려할 때, ‘삼분법’의 A식, B식, C식 모두 단일 지향, 이중 지향, 삼중 지향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단일 지향의 경우, A식은 뒤에 있는 주어나 서술어, 목적어 중 하나를 지향하고, B식은 ‘在’ 자구 뒤의 서술어를, C식은 앞에 있는 서술어나 목적어를 지향한다. 이중 지향의 경우, A식은 뒤에 있는 주어와 서술어 또는 서술어와 목적어를 지향하고, B식은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서술어 또는 뒤에 있는 서술어와 목적어를 지향하며, C식은 앞에 있는 주어와 서술어 또는

서술어와 목적어를 지향한다. 삼중 지향의 경우, A식은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두를 지향하고, B식은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서술어, 목적어를, C식은 앞에 있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두를 지향한다.

제4장 ‘在’자문의 인지화용론적 분석

‘화용 (pragmatic)’이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미국 학자 찰스 모리스 (Charles Morris)가 1938년에 저술한 『부호 이론 기초』에서 등장했다. 모리스는 언어학을 기호학 이론 체계에 포함시켰다. 그는 언어학이 주로 기호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봤다.¹⁸⁾

어법 연구에서의 화용은 문장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을 의미한다. 문장 속의 단어와 사용자(기호와 인간) 간에는 특정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화용론적(pragmatical)으로 분류된다. 화용론을 연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서로 소통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¹⁹⁾ 즉, 화용론자가 커뮤니케이션 중에 어떻게 화용론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언어 요소를 조직하여 특정한 화용론 정보를 표현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문법 분석에서의 통사론과 의미론은 문장을 정적이고 고립적이며 추상적으로 분석하고 묘사하는 반면, 화용론 연구는 문장이 언어 환경에서 어떻게 동적으로 변화하는지 분석에 중점을 두며, 사용자와 정보 구조의 원칙 및 기준을 결합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제공한다.²⁰⁾

이 장에서는 제2장의 통사론 연구와 제3장의 의미론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중국어 ‘在’자구에 대한 인지 언어학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²¹⁾

18) 范曉·張豫峰 등(2003:283) 참조.

19) 胡裕樹·範曉(1985:5) 참조.

20) 范曉·張豫峰 등(2003:286) 참조.

21) 인지 화용론 측면에서, 연구 필요에 따라 예문들을 더 이상 세 가지 형태로 자세히 구분하지 않는다.

4.1 주제와 평언²²⁾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는 대화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 정보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대화가 연속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패턴에 따라, 대부분의 문장은 화용적 차원에서 ‘주제(Topic)’와 ‘평언(Comment)’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서술보다 앞에 위치하며, 문장이 논하는 주제나 대상으로, 기존 정보를 대표한다. 서술은 주로 주제 뒤에 위치하며, 주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정보를 대표한다.

4.1.1 주제

4.1.1.1 주제의 특징

첫째, 주제 표기

주제가 두드러진(topicprominent) 언어들은 대부분 고정되고 전문적인 주제 표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주제 표기는 ‘는’이다, 예를 들어 ‘오늘은 3월 8일이다.’ 책에서 원래 일본어 예를 제시했지만, 연구의 편의를 위해 해당 부분을 한국어로 변경하였다. 한국어의 주제는 중국어처럼 고정되고 전문적인 표지 형식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제와 서술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큰 중단이 가능하며, 따라서 ‘啊, 呀, 呢, 吧, 嘛’ 등의 어기조사를 삽입할 수 있다.

(1) **在我們公司呢**, 這次的項目需要您的幫助。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22) 주제와 평언 부분은 모두 范曉·張豫峰等(2003) 참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예(1)에서 ‘在我們公司呢’은 문장의 주제 부분으로, 뒤에 오는 ‘呢’은 주제 부분의 어기조사로, 특정한 정지를 나타내며 생략할 수 있다. 문장에서 주제와 이어지는 서술 부분 사이에는 어기조사를 추가하거나 구두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와 서술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다.

둘째, 주제와 평언 사이에 ‘是不是’를 넣어서 반복 질문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阿眉在前廚房忙碌著’는 문장을 ‘阿眉是不是在前廚房忙碌著’로 변형할 수 있다.

(2) a. 阿眉在前廚房忙碌著, ……

(阿眉가 앞쪽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

b. 阿眉是不是在前廚房忙碌著?

(阿眉는 앞쪽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지 않나요?)

예(2a)에서 ‘阿眉’는 주제로, 문장의 오래된 정보인 ‘阿眉’를 설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在前廚房忙碌著’는 서술 부분이 주제인 ‘阿眉’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2b)는 주제와 서술 사이에 ‘是不是’를 삽입하여 예(2a)의 서술문을 반복 질문문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1.1.2 주제의 유형

주제의 내부 구성 요소가 나타내는 기능적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제와 평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A. 행위자-대상 유형 (“張老師, 他教過我。” “這個問題不好解決。”) B. 시간-장소(배경) 유형 (“明天她結婚。” “牆壁上他掛了一張年畫。”) C. 소속 유형 (“他眼睛大。”) D. 총괄-나눔 유형 (“我們班, 一半是男生, 一半是女生。”) E. 관련 유형 (“她的婚事, 她自己做主。”) 본문에서는 연구 필요에 따라 주로 ‘시간-장소 배경

유형’ 과 ‘총괄-나눔 유형’을 검토할 것이다.

(3) 在學校，明天舉行畢業典禮。

(학교에서 내일 졸업식을 거행한다.)

(4) 他們在教室裏展示著各自的才藝，一個唱歌，一個跳舞。

(그들은 교실에서 각자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명은 노래를 부르고 다른 한 명은 춤을 춘다.)

예(3)에서 ‘在學校’는 주제로, 문장의 기존 정보인 ‘在學校’를 설명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어지는 ‘明天舉行畢業典禮’는 서술 부분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在學校’는 졸업식이 열리는 배경 장소를 표현하며, 주제 유형 중 ‘시간-장소 배경 유형’에 속한다. 예(4)에서 ‘他們’은 주제로, 문장의 기존 정보이며, 이어지는 ‘在教室裏展示著各自的才藝，一個唱歌，一個跳舞’는 서술 부분으로, 주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며, 이는 ‘총괄-나눔 유형’에 해당한다.

4.1.1.3 주제화

소위 ‘주제화’란 특정 화용적 필요에 맞춰, 통사, 의미, 화용등의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장의 특정 구성 요소를 문장의 앞쪽으로 가져와 주제로 삼아, 이 구성 요소를 주목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在藍色的海洋上，一對對艦艇從天邊排到天邊。

(푸른 바다 위에서, 한 쌍씩의 함선들이 하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늘어서 있다.)

예(5)에서 ‘在藍色的海洋上’는 동사 앞에 위치하여 부사구 역할을 하며, 원래 문장 구조는 “一對對艦艇在藍色的海洋上從天邊排到天邊。”가 된다. 여기서는 특정

표현의 필요성에 따라 화용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특정 상황에 맞게 문법 규칙에 따라 동적인 언어 사용 조정을 통해 문장을 기본 문장에서 파생 문장으로 변환한다. 이는 부사구의 주제화에 해당한다.

4.1.1.4 주제의 전후 연결성

주제와 평언 구조는 문장의 언어 사용 구조로서, 그 기능 중 하나는 문장 간의 주제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주어진 정보가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대화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된다. 연결성은 다양한 수단과 형태를 통해 달성되는데, ‘總之, 據說, 換言之’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 주제 반복은 같은 주제가 문맥의 상하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 (6) 在這個城市中, 繁華的街道充滿了歡聲笑語, 在這個城市中, 人們追求著夢想, 努力奮鬥著。
(이 도시에서, 변화한 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하며,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꿈을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예(6)에서 ‘在這個城市中’는 문장의 주제로, 앞뒤로 두 번 나타나며, 이는 주제 반복의 방식에 속한다.

둘째, 이어 대체는 앞에서 언급된 주제가 뒤의 문장에서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것을 가리킨다.

- (7) 在商業領域, 人們不斷尋求新的商機, 在這個行業裏, 企業家們努力創新經營模式。
(상업 분야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며, 이 산업에서 기업가들은 경영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7)에서 ‘在商業領域’는 첫 문장의 주제이고, 두 번째 문장의 ‘在這個行業裏’는 두 번째 문장의 주제이다. 두 번째 문장의 주제 ‘在這個行業裏’는 첫 문장의 주제 ‘在商業領域’와 의미가 같고 같은 것을 가리키므로 이어 대체의 방식에 속한다.

셋째, 주제 생략은 후속 문장의 주제가 앞 문장의 주제와 완전히 동일하고, 이로 인한 모호성이 없는 경우에 주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 (8) 實習結束後，他獲得了一份滿意的工作，在公司裏展開了新的工作生涯。
(인턴십이 끝난 후, 그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얻었으며, 회사에서 새로운 직업 생활을 시작했다.)

예(8)에서 첫 번째 문장의 주제는 ‘他’이며, 두 번째 문장 ‘在公司裏展開了新的工作生涯’의 주제도 ‘他’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他’를 생략해도 전체 문장의 의미에 혼란을 주지 않으므로, ‘他’를 생략하는 것이 주제 생략의 방식에 해당한다.

넷째, 주제 연속은 후속 문장의 주제가 앞 문장의 주제와 소유, 종속, 전체와 부분 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후속 문장의 주제가 초기 문장의 주제를 의미상으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후속 문장의 주제는 초기 문장의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 (9) 在電商行業裏，阿裏巴巴是中國最大的電商平台，在電商行業的創新模式上，阿裏巴巴的創新模式正引領著行業發展。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전자상거래 산업의 혁신 모델에서, 알리바바의 혁신적인 모델이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예(9)에서 첫 문장의 주제는 ‘在電商行業裏’이며, 두 번째 문장의 주제는 ‘在電商行業的創新模式上’이다.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첫 문장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주제 연속의 방식에 속한다.

다섯째, 주제 브리징은 후속 문장의 주제가 초기 문장의 서술 또는 서술의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전후 문장이 서로 호응하고, 연결되며, 일관되고 유창한 흐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문장 간에 ‘다리를 놓는 것’과 유사하다.

(10) 他種了兩棵樹在院子裏, 在院子裏一共種了五棵樹。

(그는 뜰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뜰에는 총 다섯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예(10)에서 첫 문장의 주제는 ‘他’이고, 서술은 ‘種了兩棵樹在院子裏’이다. 두 번째 문장의 주제인 ‘在院子裏’는 첫 문장의 서술 부분의 일부로, 두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주제 연결(브리징)의 방식에 속한다.

여섯째, 주제 대조는 후속 문장의 주제가 이전 문장의 주제와 유사하거나 의미상 반대되는 사물이나 관계를 나타내어, 전후 문장의 주제가 대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11) 在學術界, 一些研究項目取得了突破性進展, 而在理論界, 一些理論研究則陷入了停滯。

(학계에서는 일부 연구 프로젝트가 돌파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론계에서는 일부 이론 연구가 정체되었다.)

예(11)에서 첫 번째 문장의 주제는 ‘在學術界’이며, 두 번째 문장의 주

제는 ‘在理論界’이다. 두 주제는 의미상 반대되는 관계로, 두 문장이 전후로 대비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주제 대조의 방식에 속한다.

위에서 화용적 측면에서 주제에 관하여, 주제의 특성, 유형, 주제화 및 주제의 전후 연결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현대 중국어 ‘在’자구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4.1.2 평언

4.1.2.1 평언의 특징

첫째, 평언 표지

중국어에서 주제와 서술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啊, 呀, 呢, 吧, 嘛’와 같은 어기조사를 삽입할 수 있다. 구어에서는 주제와 서술 사이에 종종 큰 정지가 있다. 이러한 표지들은 주제를 표시하는 동시에 서술 또한 표시한다.

(12) 在我的夢中啊, 我常常回到那個充滿歡樂和溫暖的小鎮。

(내 꿈속에서, 나는 종종 즐거움과 따뜻함이 가득한 그 작은 마을로 돌아간다.)

예(12)에서 ‘在我的夢中啊’는 문장의 주제 부분이며, 그 뒤에 오는 ‘啊’는 주제 부분의 어기조사로, 생략할 수 있다. 문장의 주제와 그 뒤의 평언 사이에는 어기조사를 추가하거나 구두점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제와 평언 사이에는 상당한 정지가 있다. 어기조사 ‘啊’는 주제의 표시이자 평언의 표시이다.

둘째, 주제와 평언 사이에 ‘是不是’를 삽입하여 반복 질문문으로 변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문은 앞의 예문(2)를 참고하십시오.

4.1.2.2 평언의 유형

문장에서 평언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분류하면, 평언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서술적 평언, 묘사적 평언, 판단적 평언, 평가적 평언. 이에 따라 네 가지 문장 유형이 형성된다. 서술문, 묘사문, 판단문, 평가문 이하 각각을 설명하겠다.

첫째, 서술적 평언

서술적 평언은 주제가 반영하는 사물의 운동이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평언은 서술문을 구성한다. 서술적 평언에서 중심 단어는 주로 동작 동사나 경험 동사가 사용되며, 동태를 나타내는 조사 ‘了, 過, 起來’와 시간의 진행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부사 ‘正/正在, 已/已經, 將/將要’등을 동반할 수 있다.

(13) 他在操場上運動。

(그는 운동장에서 운동한다.)

예(13)에서 주제는 ‘他’이며, 평언은 ‘在操場上運動’이다. 이 문장은 ‘他’의 운동 과정을 서술하는 데 사용되며, 서술문에 사용되며 서술적 평언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 묘사적 평언

묘사적 평언은 주제가 반영하는 사물의 성질이나 나타나는 상황, 상태를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묘사적 평언의 중심어는 보통 상태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한 성상 동사가 담당한다.

(14) 霓虹燈閃爍的光芒在繁華的市中心映照出行人各自匆忙的身影。

(네온등이 반짝이는 빛이 변화한 도심에서 각자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모습을 비춘다.)

예(14)에서 주제는 ‘霓虹燈閃爍的光芒’이며, 평언은 ‘在繁華的市中心映照出行人各自匆忙的身影’이다. 이 문장은 주제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상황과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묘사적 평언 유형에 해당한다.

셋째, 판단적 평언

판단적 평언의 표현 용도는 주제와 평언에 반영된 두 사물 간의 어떤 관계를 판단하거나 설명하는 것이다. 판단적 평언은 보통 관계 동사(是、爲、姓、屬於、等於、大於、小於、具有、含有、像、猶如等)와 명사성 어구로 구성된다.

(15) 在市中心, 有一家最好的法式餐廳。

(시내 중심에 최고의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다.)

예(15)에서 주제는 ‘在市中心’, 평언은 ‘有一家最好的法式餐廳’이다. ‘관계 동사+명사형 어휘’로 구성되어 주제와 평언에서 반영된 두 사물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넷째, 평가적 평언

평가적 평언은 주제가 반영하는 사물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평언은 평가문을 구성한다. 평가적 평언은 일반적으로 평가를 나타내는 동사(일반 문법서에서 말하는 ‘조동사’ 또는 ‘능원 동사’, 예, 能, 可能, 可以, 應該 등)와 다른 동

사형 어구를 사용하여, 대체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포함한다.

(16) 他今天沒有參加會議，可能在家休息。

(그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아마 집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예(16)에서 주제는 ‘他’이며, 평언은 ‘今天沒有參加會議，可能在家休息’이다. 평언의 뒷부분은 ‘능원 동사+동사성 어휘’로 이루어져 있어, 주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담은 평가를 제공한다.

4.1.2.3 평언의 연속성

평언의 연속성은 주제의 연속성과 유사하며, 사용되는 수단도 비슷하다.

첫째, 동일한 어휘 반복은 평언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동일한 평언을 문맥의 다른 문장에서 반복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他的衣服放在沙發上，他的帽子放在沙發上，他的書包也放在沙發上。

(그의 옷은 소파 위에 놓여 있고, 그의 모자도 소파 위에 놓여 있으며, 그의 가방도 소파 위에 놓여 있다)

예(17)에서 세 절의 평언은 모두 ‘放在沙發上’로 동일한 평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어휘 반복 방식에 해당한다.

둘째, 다른 어휘 대체는 앞 문장의 평언이 뒤의 문장에서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18) 媽媽在公共汽車上給老人讓座，孩子也這樣做。

(엄마가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아이도 그렇게 했다.)

예(18)에서, 첫 번째 문장의 평언은 ‘在公共汽車上給老人讓座’이고, 두 번째 문장의 평언은 ‘這樣做’로, 첫 번째 문장의 평언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이어 대체의 방식에 해당한다.

셋째, 평언 대조는 후속 문장의 평언이 이전 문장의 평언과 의미상 반대되거나 관련 있는 동작이나 사물을 나타내어, 전후 문장의 평언이 대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19) 他在順境中保持謙遜，他在逆境中依然堅強。

(그는 순경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역경에서도 여전히 굳세다.)

예(19)에서, 전후 문장의 주제는 모두 ‘他’이며, 첫 번째 문장의 평언은 ‘在順境中保持謙遜’이고, 두 번째 문장의 평언은 ‘在逆境中依然堅強’이다. 이 두 평언은 대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평언 대조의 방식에 해당한다.

넷째, 평언 재사용은 후속 문장의 평언이 앞 문장의 평언 또는 평언의 일부를 반복하여 전후 문장이 서로 호응하고, 서로 연결되며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문장 사이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것과 유사하다.

(20) 她喜歡閱讀，最喜歡在圖書館裏閱讀。

(그녀는 독서를 좋아하며, 특히 도서관에서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예(20)에서는 첫 번째 문장의 평언이 ‘喜歡閱讀’이고, 두 번째 문장의 평언은 ‘最喜歡在圖書館裏閱讀’이다. 이 두 평언은 서로 연결되어 평언이 이어지는 ‘평언 연결’ 방식에 해당한다.

다섯째, 평언 연속은 후속 문장의 평언이 의미상으로 시작 문장의 평언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작 문장의 평언을 연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1) 他會先畫在草稿紙上，然後再開始在牆上作畫。

(그는 먼저 드래프트 종이에 그림을 그린 후, 그 다음에 벽에 그리기 시작할 것이다.)

예(21)에서, 첫 번째 문장의 평언은 ‘會先畫在草稿紙上’이며, 두 번째 문장의 평언은 ‘然後再開始在牆上作畫’이다. 문장에서 ‘先... 然後’를 사용하여,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의 평언을 연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평언 연속의 방식에 속한다. 이 구조는 첫 번째 행동이 끝난 후 다음 행동이 시작된다는 자연스러운 순서를 보여 주며, 두 활동 간의 의미상의 연결을 강조한다.

위에서 언급된 화용적 측면의 평언 부분은 평언의 특성, 유형, 그리고 연속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대 중국어 ‘在’자문의 평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22) a. 在院子裏我種了幾棵菊花兒。(范繼淹의 예)

(저는 마당에 몇 송이의 국화를 심었다.)

b. 我在院子裏種了幾棵菊花兒。

(저는 마당에서 몇 송이의 국화를 심었다.)

c. 我種了幾棵菊花兒在院子裏。

(저는 몇 송이의 국화를 마당에 심었다.)

‘삼분법’에 따르면 예(22a)는 A식에 속하고, 예(22b)는 B식에, 예(22c)는 C식에 속한다. 이 세 예를 문장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세 문장 모두 주어는 ‘我’, 동사는 ‘種’, 목적어는 ‘菊花兒’, 부사어는 ‘在院子裏’이다, 의미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모든 예에서 행위자는 ‘我’, 대상은 ‘花’, 장소는 ‘在院子裏’이다. 이로써 볼 때, 위의 세 문장은 문장 구조적이든 의미적이든 분석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예문은 화용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예(22a)와 예(22b)를 비교해보겠다. 예(22a)에서 ‘在院子裏’(마당에서)는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여 주체로서 기능하며, ‘我種了幾棵菊花兒’(나는 몇 송이의 국화를 심었다)는 평언으로서, ‘在院子裏’를 중심으로 설명이 전개된다. 반면 예(22b)에서는 ‘我’가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여 주체로서 기능하고, ‘在院子裏種了幾棵菊花兒’(나는 마당에서 몇 송이의 국화를 심었다)는 서술어로서, ‘我’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로부터 예(22a)와 예(22b)에서 주제와 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예(22b)와 예(22c)를 비교해 보겠다. 예(22c)에서 ‘我’는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여 주체로 기능하고, ‘種了幾棵菊花兒在院子裏’(나는 마당에 몇 송이의 국화를 심었다)는 평언으로서, ‘我’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예(22b)와 예(22c)에서 주제는 같지만 평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들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정보가 강조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4.2 전경(초점)과 배경

4.2.1 초점 과 배경

초점(Focus)은 문장이 전달하는 정보 중에서 강조하려는 부분이나 화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가리키며, 화용적 차원에 속한다. 초점은 정보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자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지며, 어떤 것은 강조하여 설명하려는 정보이고, 어떤 것은 그 강조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정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자를 초점(focus)이라 하고, 후자를 배경(background)이라 한다. 초점은 자연 초점과 대비 초점으로 나눈다. 자연 초점은 일반 초점, 중성 초점, 비대비 초점 등으로도 불린다. 중국어에서 자연 초점은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위치하는 단어에 위치하며, 이를 ‘문미 초점 원칙’이라고 흔히 부른다. 즉, 문장의 끝부분은 강조되고 돋보이는 구성 요소로서 초점이 되며, 다른 부분은 배경이 된다. 정보 전달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는 정보를 전달할 때 멀리서 가까스로, 알려진 안정적인 기존 정보에서 알려지지 않은 변동성 있는 새로운 정보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언어의 선형적 순서에서 문장의 끝으로 갈수록 정보의 내용이 새롭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고, 따라서 문장의 초점이 되기 쉽다.²³⁾

초점집중은 특정 기준점에서 상황을 관찰할 때 상황에 대한 심리적 집중의 정도를 말한다. 집중도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고집중, 저집중, 무집중. 고집중은 대체로 영어의 ‘was writing(글을 쓰고 있었다)’에 해당하고, 저집중은 ‘was writing(글을 쓰고 있었다)’과 ‘wrote(글을 썼다)’에 대략적으로 대응한다. 무집중은 영어의 ‘wrote(글을 썼다)’, ‘would write(글을 쓸 것이다)’, ‘used to write(종종 글을 썼다)’에 해당한다. 집중도의 비교는 아래 표와 같다.²⁴⁾

<표 4> 초점집중의 비교표

	범위	중국어 대응 의미	영어 대응 의미
고집중	협착식	正在寫	was writing
저집중	확장식	正在寫 寫	was writing wrote
무집중	개방식	寫 將會寫	wrote would write

23) 范曉·張豫峰 등(2003:340-341) 참조.

24) 陳前瑞(2008:247-248) 참조.

		常常寫	used to write
--	--	-----	---------------

(23) 某人在郵局填單子。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서 서식을 작성한다.)

예(23)에서 ‘在’자문 ‘在郵局’로, ‘填單子’이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숨겨진 행동으로는 ‘寄快遞’(예: “他在寄快遞。”), ‘寄包裹’(예: “他在寄包裹。”)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在’는 직관적인 현상의 동사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숨겨진 본질적인 동사 구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在’자구는 특정 행동이 수행되는 장소를 명확하게 밝히며, 제시 범위는 좁아서 고집중에 속한다.²⁵⁾

4.2.2 전경과 배경

전경(Figure)은 움직이는 것이거나 개념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물로, 그 경로, 위치 또는 방향이 가변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가변성의 특정한 값이다. 배경(Ground)은 참조하는 사물로, 특정 참조 프레임에 대해 고정된 배경을 가지며,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전경의 경로, 위치 또는 방향이 묘사된다.

전경과 배경은 여러 점의 조합, 선형 연장 또는 일정한 부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Clothes filled the box.(옷이 상자를 가득 채웠다.) b. The river flowed alongside the mountain range.(河流沿著山脈流淌。) 또한, 전경은 보통 움직이는 물체나 이동 가능한 것이지만, 정

25) 陈文(2000:251)에 따르면, ‘在’는 반복적인 활동이나 장기간의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在’가 저집중도 상태로, 참조점에서 실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自行車在房子旁邊。” 이러한 예들은 전경이 어떻게 주변 배경과 상호작용하며 시각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여 준다.²⁶⁾

따라서 배경은 어떤 참조 사물이며, 정보의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전경에서의 정지되었거나 움직이는 사물의 경로, 위치, 방향, 상태 등의 가변성을 나타내는 특정 값이 설명될 수 있다. 전경은 배경이 제공하는 맥락 속에서, 그 사물의 동적인 성질이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또한, Tamly (2000)는 공간 관계의 좁은 의미에서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객관적’ 특성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²⁷⁾

<표 5> 전경과 배경의 특성 설명표

전경 (Figure)	배경 (Ground)
장소 익숙하지 않음	장소 더 익숙함
더 작음	더 큼
더 이동성이 있음	더 정지해 있음
구조 더 간단함	구조가 더 복잡함
더 간단함	눈에 띄지 않음
의식에 더 가까움	장면이나 기억에서 더 오래됨

전경과 배경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볼 때, 일부 개념화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식과 일치하고, 일부는 사람들의 인식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24) a. The TV antenna was above the house. (電視天線在房子上面。)

(전신주 안테나가 집 위에 있다.)

b. The house was below the TV antenna. (*房子在電視天線下面。)

(*집은 전신주 안테나 아래에 있다.)

26) 東定芳(2008:134) 참조.

27) 東定芳(2008:137)에서 재인용.

예(24a)와 (24b)에서 TV 안테나와 집을 비교할 때, 전자는 상대적으로 작고 더 눈에 띄며, 후자는 크기가 크고 형태가 정지되어 있어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를 전경으로, 후자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인지 규칙에 부합한다. 반대로 전자를 배경으로, 후자를 전경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물 인식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의 이론을 본 연구의 대상에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25) 自行車在房子旁邊停著。
(자전거가 집 옆에 세워져 있다.)
- (26) 氣球在房頂上飛過。
(풍선이 지붕 위를 날아간다.)

예(25)과 예(26)에서 전경은 각각 ‘自行車’와 ‘氣球’이다. 여기서 ‘自行車’는 정지된 사물이며, ‘氣球’는 움직이거나 이동 가능한 사물이다. ‘在房子旁邊’과 ‘在房頂上’은 배경 부분으로, 이는 발화자가 수신자가 초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토대이자 참조하는 사물, 고정된 배경이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전경인 ‘自行車’와 ‘氣球’의 경로, 위치 또는 방향이 묘사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문미 초점 원칙’에 따라, 문장 끝의 새로운 정보가 초점으로, 발화자가 강조하려는 내용이다. 예(25)에서 초점인 ‘停著’는 배경의 서술 하에 ‘自行車’의 정지 상태를 강조한다. 예(26)에서 초점인 ‘飛過’는 발화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정보로, 배경의 서술 하에 ‘氣球’의 이동 상태를 강조한다.

또한, 戴浩一(Tai 1975, 1985)은 “我在馬背上跳。”와 “我跳在馬背上。”라는 두 문장을 언급한다. 앞서의 연구 관점에 따르면, ‘我’에 비해 ‘馬背上’가 더 두드러지고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馬背上’는 전체

사건의 배경이고, ‘我’는 전경이다. “我在馬背上跳。” 라는 문장에서는 전경인 ‘我’가 강조되며, 배경인 ‘馬背上’에서 수행되는 동작 ‘跳’를 강조한다. “我跳在馬背上。” 이라는 문장에서는 전경인 ‘我’가 강조되며, 동작 ‘跳’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장소(배경)인 ‘馬背上’이 강조된다. 戴浩一가 언급한 시간 순서의 원칙은 언어 사용의 '문미 초점' 원칙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위의 문서에서 언급된 范繼淹의 세 가지 전형적인 예를 다시 한 번 전경(초점)과 배경 측면에서 분석하겠다.

- (27) (전22) a. 在院子裏我種了幾棵菊花兒。
 (저는 뜰에 몇 송이의 국화를 심었다.)
 b. 我在院子裏種了幾棵菊花兒。
 (저는 뜰에 몇 송이의 국화를 심었다.)
 c. 我種了幾棵菊花兒在院子裏。
 (저는 몇 송이의 국화를 뜰에 심었다.)

위의 세 문장은 진리적 의미가 동일하지만, 발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 배치 전략도 다르다. 발화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문장 끝에 위치시켜 자연스러운 초점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를 강조한다. ‘菊花’와 ‘在院子裏’를 비교할 때, 전자는 상대적으로 작고 눈에 띄는 반면, 후자는 크기가 크고 형태가 정적이며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菊花’를 전경으로, ‘在院子裏’를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이 인지 규칙에 부합한다. ‘在院子裏’는 배경 부분으로, 발화자가 수신자가 초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정보의 토대이자 참조하는 사물, 고정된 배경이다. 바로 이 배경을 통해 전경인 ‘菊花’의 구체적 정보가 묘사된다. 예(27a)의 초점은 문장 끝의 새로운 정보인 ‘幾棵菊花兒’에 있다. 예(27b)의 초점도 예(27a)와 같이 ‘幾棵菊花兒’로, 발화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다. 예(27c)에서 문장 끝에 위치한

‘在院子裏’는 새로운 정보의 위치를 차지하며, 이때 배경은 더 이상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 문장은 ‘我種了幾棵菊花兒’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여전히 ‘문미 초점’을 따르며, ‘在院子裏’가 발화자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된다.

4.3 소결

본 장에서는 현대중국어 ‘在’자문에 대해 인지화용론적 분석을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장에서는 주로 ‘주제와 평언’ 및 ‘전경(초점)과 배경’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 중국어 ‘在’자문을 인지화용론적 관점에서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주제와 평언의 관점에서 볼 때, A식(PP+NP+VP)에서 PP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며 주제 역할을 하여, 그 PP가 문장의 기존 정보임을 설명한다. 이후 NP+VP는 평언으로, PP 주변에서 전개된다. B식(NP+PP+VP)에서는 NP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며 주제 역할을 하여, 그 NP가 문장의 기존 정보임을 설명하며, 뒤따르는 PP+VP는 평언으로, NP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C식(NP+VP+PP)에서는 역시 NP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며 주제로서, 그 NP가 문장의 기존 정보임을 밝히고, 뒤따르는 VP+PP는 평언으로서, NP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둘째, 주제 관점에서는 주제의 특성, 유형, 주제화, 주제의 전후 연속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현대 중국어 ‘在’자구의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평언 관점에서는 평언의 특성, 유형, 연속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현대 중국어 ‘在’자구의 평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어 구문의 다양한 언어 사용 패턴과 그 기능적 측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전경(초점)과 배경의 관점에서 보면, A식(PP+NP+VP)에서는 발화자가 전달하려는 새로운 정보가 문장 끝에 위치한 VP에 있으며, 강조되는 초점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다. B식(NP+PP+VP)에서도 새로운 정보는 문장 끝의 VP에 위치하지만, 전체 문장의 배열 순서가 A식과 다르고,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가 나타나는 순서가 다르므로 강조하는 정보도 다르다. B식에서 발화자가 강조하는 초점은 누군가가 ‘어디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다. C식(NP+VP+PP)에서는 발화자가 일반식과 다른 파생식을 사용하여 PP를 문장 끝에 위치시키며, 발화자가 강조하는 초점은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PP가 발화자가 전달하려는 새로운 정보가 된다. 이는 정보의 제시 방식이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현대 중국어에서 ‘在’자문에 대해 통사론, 의미론, 인지화용론적 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통사론, 의미론, 인지화용론의 세 개 측면에서 중국어 ‘在’자문에 대해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통사 형태에 있어서 본 논문은 문장 내에 나타나는 ‘在’자구의 표면적 위치를 기준으로 ‘在’자문을 ‘삼분법’에 따라 A식, B식, C식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 A식은 ‘PP+NP+VP’로 간단히 표현되며, 즉 PP ‘在+NP’ 구조가 문장 첫 머리, 주어 앞에 위치한다. B식은 ‘NP+PP+VP’로 간단히 표현되며, 즉 PP ‘在+NP’구조가 문장 중간, 주어 뒤, 서술어 앞에 위치한다. C식은 ‘NP+VP+PP’로 간단히 표현되며, 즉 PP ‘在+NP’구조가 문장 끝, 동사 뒤에 위치한다. 정리하자면, A식에서는 ‘在’자구가 앞에, B식에서는 중간에, C식에서는 뒤에 위치한다.

둘째, 통사적 차원에서, 본 논문은 층차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在’구문에서 ‘在’자구와 문장의 주어 및 동사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A식 ‘PP+NP+VP’에서 첫 번째 층차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PP와 그 뒤의 소절로, 이들 사이에는 종속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층차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NP와 VP로, 이들 사이에는 주어-동사 관계가 있다. B식 ‘NP+PP+VP’에서 첫 번째 층차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NP와 그 뒤의 절로, 이들 사이는 주술 관계이다. 두 번째 층차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PP와 VP로, 이들 사이는 수식 관계 있다. C식 ‘NP+VP+PP’에서 첫 번째 층차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앞의 절과 PP로, 이들 사이는 술보 관계이다. 두 번째 층차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NP와 VP로, 이들 사이는 주술 관계이다.

셋째, ‘在’자구의 어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在’자구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요인 및 기타 요인 등이 있다. 통사적 영향 요인에서는 주로 다음 네 가지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1) ‘被’자문이거나 주어가 대상일 때 C식을 사용한다. 2) 문장 내 동사가 중복 형식일 때 B식을 사용한다. 3) 문장 내 동사가 보어 구성 요소를 동반할 때 B식을 사용한다. 4) 문장 내 동사가 목적어를 동반할 때 C식을 사용한다. 의미적 영향 요인에서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1) 행동이 발생하거나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A식 또는 B식을 사용한다. 2) 출생, 발생, 생산 또는 구금 장소를 나타낼 때 세 가지 형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 행동이 도달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C식을 사용한다. 화용적 영향 요인에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1) 대화의 연결이 필요할 때 A식을 선호한다. 2) 문장 구조의 필요에 따라 전후 문장이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기타 요인에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1) 동사가 단음절일 때 C식을 사용하고, 이음절일 때 A식 또는 B식을 사용한다. 2) ‘在’자구 자체가 길 때 A식을 사용한다.

넷째, 동사의 사용에 관한 부분에서, 본문은 예문 분석을 통해 A식, B식, C식의 차이가 구조뿐만 아니라 동사 사용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A식과 B식은 동사의 제약이 많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동사들을 A식과 B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C식은 동사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하며, 동사 자체의 제한으로 인해 C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동사들도 있다.

다섯째, 의미적 측면에서 A식, B식, C식에 있는 ‘在’자구의 문법적 의미를 각각 검토하였다. A식에서는 ‘在+NP’구조가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며, 그 문법적 의미는 뒤에 나오는 전체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뒤에 이어지는 서술하고 묘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되었다. B식에서는 ‘在+NP’구조가 문장 중간에 위치하며, 그 문법적 의

미는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나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C식에서는 ‘在+NP’구조가 문장 끝에 위치하며, 그 문법적 의미는 동작이 도달하는 장소나 상태가 나타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여섯째, 의미 지향의 방향과 수량 측면에서, 세 가지 형식은 모두 단일 지향, 이중 지향, 삼중 지향의 세 가지 경우를 포함했다. A식에서는 단일 지향일 때 뒤에 오는 주어나 동사, 목적어를 지향하며, 이중 지향일 때는 뒤에 오는 주어와 동사, 혹은 동사와 목적어를 지향한다. 삼중 지향일 때는 뒤에 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모두를 지향한다. B식에서는 단일 지향일 때 ‘在’자구 뒤에 오는 동사를 지향하고, 이중 지향일 때는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오는 동사, 혹은 동사와 목적어를 지향했다. 삼중 지향일 때는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오는 동사, 목적어 모두를 지향했다. C식에서는 단일 지향일 때 앞에 있는 동사나 목적어를 지향하고, 이중 지향일 때는 앞에 있는 주어와 동사, 혹은 동사와 목적어를 지향했다. 삼중 지향일 때는 앞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모두를 지향했다.

일곱째, 주제와 평언의 화용적 차원에서, 주제의 특성, 유형, 주제화, 주제의 전후 연속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주제를 검토하고, 평언의 특성, 유형, 연속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평언을 검토하였다. A식 PP+NP+VP에서 PP는 문장의 첫 부분에 위치하며 주제로서, 문장의 주어진 정보가 해당 PP임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뒤따르는 NP+VP는 평언으로서 PP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B식 NP+PP+VP에서는 NP가 문장의 첫 부분에 위치하며 주제로서, 문장의 주어진 정보가 NP임을 설명하며, 뒤따르는 PP+VP는 평언으로서, NP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C식 NP+VP+PP에서는 NP가 문장의 첫 부분에 위치하며 주제로서, 문장의 주어진 정보가 NP임을 밝히고, 뒤따르는 VP+PP는 평언으로서, NP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여덟째, 전경(초점)과 배경의 인지화용적 인지적 차원에서, A식 PP+NP+VP에서 발화자가 전달하려는 새로운 정보는 문장 끝의 VP에 위치하며, 강조되는 초점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이었다. B식 NP+PP+VP에서는 발화자가 전달하려는 새로운 정보도 문장 끝의 VP에 위치하는 것은 A식과 동일하지만, 전체 문장의 배열 순서가 다르고 새로운 정보와 주어진 정보의 제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정보도 다르다. B식에서 발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하는 어떤 행동’ 이었다. C식 NP+VP+PP에서는 발화자가 일반적인 형식과 다른 파생 형식을 사용하여 PP를 문장 끝에 위치시키고, 발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은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 장소를 나타내는 PP가 발화자가 전달하려는 새로운 정보가 되었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 중국어의 ‘在’자문을 통사론, 의미론, 인지화용론이라는 ‘삼개평면’에서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현대 중국어에서 ‘在’의 전치사 사용, 특히 ‘在+NP’전치사구의 사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본 논문이 달성한 성과이었다.

< 參 考 文 獻 >

1. 단행본

- 高順全(2004), 『三個平面的語法研究』, 上海:學林出版社.
- 馬慶株(2005), 『二十世紀現代漢語語法論文精選』, 北京:商務印書館.
- 馬真([1997]2006), 『簡明實用漢語語法教程』, 北京:北京大學出版社.
- 房玉清([2001]2006), 『實用漢語語法』(修訂本), 北京:北京大學出版社.
- 范曉([1996]1998), 『三個平面的語法觀』, 北京: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 范曉·張豫峰(2003), 『語法理論綱要』, 上海:上海譯文出版社.
- 沈家煊(2005), 『現代漢語語法的功能、語用、認知研究』, 北京:商務印書館.
- 呂叔湘(1979), 박중환·이창호 공역(2004) 『중국어 문법 분석록』, 서울:학고방.
([1980]2005),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商務印書館.
- 溫鎖林(2001), 『現代漢語語用平面研究』, 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
- 袁暉·戴耀晶(1998), 『三個平面:漢語語法研究的多維視野』, 北京:語文出版社.
- 劉月華·潘文娛·故韓 지(2001), 김현철 외 역(2005) 『實用現代漢語語法』(上,下), 서울:송산출판사.
- 陸儉明([2005]2009), 『現代漢語語法研究教程』(第三版), 北京:北京大學出版社.
- 陸儉明·沈陽([2004]2005), 『漢語和漢語研究十五講』, 北京:北京大學出版社.
- 張斌([2001]2006), 『現代漢語虛詞詞典』, 北京:商務印書館.
- 張誼生([2000]2002), 『現代漢語虛詞』, 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
- 丁聲樹等著([1961]2002),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商務印書館.
- 趙元任([1979]2005), 『漢語口語語法』, 北京:商務印書館.
- 朱德熙([1980]2005), 『現代漢語語法研究』, 北京:商務印書館.
_____[([1982]2005), 『語法講義』, 北京:商務印書館.
- 陳前瑞(2008), 『漢語體貌研究的類型學視野』, 北京:商務印書館.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1960]2016), 『現代漢語詞典』(第7版), 北京:商務印書館.
- 何兆熊主編([2000]2001), 『新編語用學綱要』, 上海:上海外語教育出版社.
- 胡裕樹主編([1962]2011), 『現代漢語』(重訂本), 上海:上海教育出版社.

2. 논문류

- 賈芳霞(2018), <“在+NP”主位化研究>,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 賈君芳(2017), <漢語后置介詞結構研究華>, 中科技大學 博士學位論文.
- 김연미(2020), 『현대중국어‘비처소동사+在+XP’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매(2011), 『현대중국어 양태 표현 동사‘能’, ‘會’, ‘要’, ‘可以’의 오류 현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리우 나(2008), 『중국어 교육을 위한‘去+VP’와 ‘VP+去’ 문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리우 나(2019), <現代漢語“V₁ +給+NP與+V₂”句式的語用功能及認知分>, 『중국어교육과연구』 第30期, 189-203.
- 明洋洋(2019), <현대중국어‘V+在+NL’구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范繼淹(1982), <論介詞短語‘在+處所’>, 『語言研究』 第1期, 71-86.
- 邵敬敏(1982), <關於‘在黑板上寫字’句式分化和變換的若幹問題>, 『語言教學與研究』 第3期, 35-43.
- 邵洪亮·郭文國(2001), <‘在+L+VP’結構中‘在’的分化>, 『台州學院學報』 第3期, 52.
- 邵洪亮(2003), <表處所的“在”字句研究綜述>, 『台州學院學報』, 第2期 56-60.
- 宋文輝(2007), <再論影響“在+處所”句法位置的因素>, 『語言教學與研究』, 第6期, 40-47.
- 宋眞喜(1997), <‘在’字句研究綜述>, 『漢語學習』 第2期. 31-34.
- 施靜雯(2014) <“在+處所詞+Vp”與“Vp+在+處所詞”句法、語義、語用的比較分析>, 『學周刊』 第4期, 31-32.
- 申敬善(2006), 『現代漢語在’字句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 신준호(2009), <현대 중국어 비(比)구문에서의 생략 (Ellipsis)>, 『중국어언어연구』 第29期, 177-192.
- 沈家煊(1999), <在’字句和‘給’字句>, 『中國語文』 第2期, 98-99 .
- 沈星怡(1984), <主謂短語前的‘在+處所’>, 『語文學習』 第1期, 48-50.
- 오재선 2019, <현대중국어‘V+于+NP’구문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吳守華(2002), <漢語“V+P+N”結構研究評析>, 『學術研究』 第10期, 124-129.
- 王還(1980), <再說說‘在’>, 『語言教學與研究』 第3期, 25-30.
- 王虹(2013), <‘V+在+NP’結構和‘在+NP+V’結構的對比和變換分析>, 『劍南文學(經典教苑)』 第2期, 158-159.
- 王一平(1999), <介詞短語“在+處所”前置、中置和后置的條件和限制>, 『語文建設』 第5

期,18-22.

俞咏梅(1999),〈論在+處所的語義功能和語序制約原則〉,『中國語文』第1期, 21-29.

楊金(2006),〈“在”字句句式的語義分析〉,『陝西教育學院學報』第1期, 70-74.

유형재(2021),『현대중국어 동개식‘V在NP’구문 의미 기능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劉寧生(1984),〈句首介詞結構“在……”的語義指向〉,『漢語學習』第6期, 27-31.

이운재·송홍령(2014),〈코퍼스에 근거한 현대중국어‘V+在+장소’구문 의 의미 분석-장소구문의 동사 분포 양상을 중심으로〉,『중국어문학지』제49집, 491-515.

李鶴(2012),〈三个平面視角下的“在”字句研究〉,遼寧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張宏勝(1997),〈關於‘在+NP+V’與‘V+在+NP’〉,『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第1期, 108.

張赤貞(1997),〈論決定“在L+VP”或“VP+在L”的因素〉,『語言教學與研究』第2期,42-51.

齊滬揚(1994),〈‘N+在+處所+V’,句式語義特征分析〉,『漢語學習』第6期, 22-23.

齊滬揚(1998),〈動作‘在’字句的語義、句法、語用分析〉,『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期, 61-67.

齊滬揚(1999),〈表示靜態位置的狀態‘在’字句〉,『漢語學習』第2期, 2-8.

周紅苓(2001),〈“在”字結構和名詞的价〉,『重慶三峽學院學報』第6期, 26-30.

陳應(2010),〈“在”及其句式的多角度研究〉,四川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陳新義(2016),〈句首“在”字結構的認知功能研究〉,『渤海大學學報』第6期, 82-85.

陳重瑜(1983),〈“在十處所”的几个注脚〉,『語言研究』第4期, 244-245.

朱德熙(1981),〈在黑板上寫字’及相關句式〉,『語言教學與研究』第1期, 4-18.

賀敬華,黃珊珊(2014),〈“V+P+NP”与“P+NP+V”結構中介詞的語法特征〉,『大慶社會科學』第6期, 137-140.

胡裕樹·范曉(1993),〈試論語法研究的三個平面〉,『語法教學與研究』第2期, 4-22.

黃婉梅(2002),〈表處所的“在Np”的語義分析〉,『安徽教育學院學報』第4期, 84-86.

侯敏(1992),〈‘在+處所’的位置與動詞的分類〉,『求是學刊』第6期, 87-92.

ABSTRACT

A Syntactic and Semantic and Cognitive Pragmatic Study of Modern Chinese 'Zai'

YU MEIHONG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conducts a syntactic, semantic, and cognitive-pragmatic analysis of the modern Chinese ‘zai + NP (location)’ phrases within zai-clauses. The objective is to categorize the prepositional usage of ‘zai’, specifically the syntactic forms of the ‘zai + NP (location)’ phrase. The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among three types of zai-clause patterns, different levels of hierarchical analysis, the diversity of semantic orientations, and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sentence patterns. Thi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aim to explore the usage of zai-clauses in modern Chinese thoroughly.

We often encounter zai-clauses containing ‘zai + NP (location)’, such as ‘這篇論文在國內發表了。’ (This paper was published in the country.) and ‘這篇論文發表在國內了。’ (This paper was published in the country.). In these two sentences, the position of ‘在國內’ before or after the verb differs, yet swapping them does

not affect the semantic expression. However, sentences like ‘我在家吃飯。’ (I eat at home.) and ‘?我吃飯在家。’ (I eat at home?) raise questions about grammatical correctness when altered. Similarly, while ‘在國內, 這篇論文發表了。’ (In the country, this paper was published.) is grammatically correct, it does not sound as natural as the previous two sentences. The reasons for this are worth exploring. Even though the above two sentences can be interchang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n to choose which sentence structure.

This paper uses these questions as a starting point, employing the positional occurrence of ‘zai + NP (location)’ in surface structures as the criterion for differentiation. It examines this aspect from three perspectives: syntactic, semantic, and cognitive-pragmatic.

In Chapter Two, the phrase ‘zai + NP (location)’ within the zai-clauses is labeled as PP (Prepositional Phrase), the subject is marked as NP (Noun Phrase), and the predicate as VP (Verb Phrase). Initially, zai-claus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position of PP in the sentence. Sentences where PP is positioned at the beginning, before the subject, are classified as Type A and represented as ‘PP+NP+VP’. Those with the PP phrase positioned in the middle, after the subject but before the verb, are classified as Type B and represented as ‘NP+PP+VP’. Sentences where PP is positioned at the end, after the verb, are classified as Type C and represented as ‘NP+VP+PP’. Additionally, a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is used to ‘segment’ and ‘qualify’ these sentence structures. In Type A ‘PP+NP+VP’, segmentation o

occurs first between PP and the following clause, categorized as a modifier–head relationship, and then between NP and VP, categorized as a subject–predicate relationship. In Type B ‘NP+PP+VP’, segmentation occurs first between NP and the following clause, categorized as a subject–predicate relationship, and then between PP and VP, categorized as a modifier–head relationship. In Type C ‘NP+VP+PP’, segmentation occurs first between the preceding clause and PP, categorized as a predicate–complement relationship, and then between NP and VP, categorized as a subject–predicate relationship. The choice of zai–clause sentence structure is examined from four aspects: syntactic influencing factors, semantic influencing factors, pragmatic influencing factors, other factors, and constraints imposed by verbs within the sentence.

Chapter Three builds upon the syntactic analysis to delve into the semantic analysis of the three zai–clause patterns. Regardless of whether the verb in the sentence is transitive or intransitive, in Type A, where the ‘zai + NP (location)’ phrase is placed at the beginning, its grammatical significance is to denote the location or scene where the entire event or action occurs, or to specify the subject or object being described. In Type B, where the ‘zai + NP (location)’ phrase is positioned in the middle, it signifies the location or state where the action occurs. In Type C, where the ‘zai + NP (location)’ phrase is at the end, it indicates the destination of the action or the presentation of the state. Additionally, a semantic orientation analysis method was employed to analyze these three types, revealing that each type can have uni–directional, bi–d

irectional, or tri-directional orientations. In Type A, uni-directional orientation points to the subsequent subject, verb, or object; bi-directional orientation points to the subsequent subject and verb, or verb and object; tri-directional orientation points to the subject, verb, and object. In Type B, uni-directional orientation points to the verb following the *zai*-phrase; bi-directional orientation points to the preceding subject and the following verb, or to the following verb and object; tri-directional orientation points to the subject, verb, and object that follow. In Type C, uni-directional orientation points to the preceding verb or object; bi-directional orientation points to the preceding subject and verb, or to the verb and object; and tri-directional orientation points to the preceding subject, verb, and object.

In Chapter Four, the *zai*-clauses are analyzed from the pragmatic perspectives of topics and comments. The element placed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is the topic, representing old information, while the subsequent part is the comment, which elaborates on this topic. In each of the three patterns, the topics are respectively: PP in Type A, NP in Type B, and NP in Type C; the comments are NP+VP in Type A, PP+VP in Type B, and VP+PP in Type C. Furthermore, an analysis of the *zai*-clauses is conducted from the cognitive-pragmatic perspective of foreground (focus) and background. According to the 'end-focus principle', the speaker positions the new information to be conveyed at the end of the sentence. In Type A PP+NP+VP, the new information is the VP at the sentence end, emphasizing the focus on 'what action by someone

takes place where' . In Type B NP+PP+VP, the new information is also the VP at the sentence end, similar to Type A, but the sequence of the sentence differs, altering the presentation order of old and new information, emphasizing the focus on 'where an action by someone takes place' . In Type C NP+VP+PP, using a derivation different from the usual form, the new information is the P P at the end, emphasizing the focus on 'where an action by someone occurs' .

In the conclusion section of Chapter Five, the content is comprehensively organized to present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thesis. It highlights the accomplishments achieved, points out the deficiencies in the study, and outlines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